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논문

가젤형 기업의 공간분포와  
고용창출 역량 분석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사 호 석

# 가젤형 기업의 공간분포와 고용창출 역량 분석

지도교수 이희연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사 호 석

사호석의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论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문초록

최근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일자리 부족 문제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의해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창업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창업지원 정책의 대상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혁신형 창업(기회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창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가젤형 기업에 대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가젤형 기업의 분포 및 특성이 지역 간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에 가젤형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지역 단위의 가젤형 기업에 대한 지역 차원에서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는 미진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먼저 가젤형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업종과 업종별 공간분포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일자리의 양적 특성과 질적 특성으로 나누어 지역별 고용창출역량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젤형 기업 전체 종사자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컸으며, 서비스업 가운데서는 특히 지식집약적인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되어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이 가젤형 기업 내 주력 업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자동차 업종의 종사자분포 비중이 높았으며, 지식기반서비스업 내에서는 사업지원, 연구개발 등 사업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가젤형 기업의 분포를 파악한 결과, 가젤형 기업 내 제조업 부문의 경우 지가가 상대적으로 싸고 전문인력 수급이 용이한 경기도에 군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대기기업의 수요 및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울에 밀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업종별 가젤형 기업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업종에 따라 상대적 우위를 점한 지역들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는 가젤형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 업종들의 입지적 특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역량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창출되는 고용의 양과 질이 매우 차별화되어 나타났다. 고용창출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기준으로 설정해 가젤형 기업의 분포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역량을 강화함에 있어서, 각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 방향이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유형별 업종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유형 1의 경우 양적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 부문 업종들의 고용창출률이 돋보였으며, 질적 측면에서는 제조업종의 고용창출의 질이 높았다. 질적우위의 유형 2는 질적 차원에서 제조업종의 고용창출의 질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양적우위의 유형 4는 대체로 지식기반서비스업 업종들의 고용창출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유형별로 특화업종을 분석한 결과, 각 유형의 양적·질적 성장은 유형별 특화 업종이 성장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역별로 특화업종을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젤형 기업을 지원 및 육성함에 있어서 지역별 고용의 양적·질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특히 지역단위에서 단순히 고용창출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단지 가젤형 기업에 의한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의 질적 측면을 적극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주요어 : 가젤형 기업, 고용 창출, 고용의 양, 고용의 질, 고용창출 역량, 지역경제 활력

◆ 학 번 : 2016-24808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0
1. 이론적 배경 .....	10
1) 가젤형 기업의 개념적 정의 .....	10
2) 창업이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 .....	15
3) 기업의 입지결정이론 .....	20
2. 선행연구 고찰 .....	22
1) 가젤형 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	22
2) 가젤형 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관한 연구 .....	26
3) 산업별 공간 분포에 관한 연구 .....	29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0
제 3 장 가젤형 기업의 추출과 업종별 특성 ....	32
1. 가젤형 기업의 정의 및 추출 과정 .....	32
1) 가젤형 기업의 정의 .....	32
2) 가젤형 기업의 추출 과정 .....	37
2. 가젤형 기업의 업종별 분포 .....	39
1) 가젤형 기업의 업종별 비율 .....	40
2) 제조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의 업종 분포 .....	42
3) 서비스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의 업종 분포 .....	43

3. 소결 .....	45
<b>제 4 장 가젤형 기업의 공간분포 .....</b>	<b>47</b>
1. 가젤형 기업의 권역별 공간분포 .....	47
2. 제조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의 공간분포 .....	49
1) 제조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 권역별 분포 .....	49
2) 제조업 주요 업종별 가젤형 기업 공간분포 .....	51
3.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의 공간분포 ..	54
1)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 권역별 분포 ...	54
2) 지식기반서비스업 주요 업종별 가젤형 기업 공간분포	56
4. 소결 .....	59
<b>제 5 장 지역별 가젤형 기업 고용창출역량 분석</b>	<b>61</b>
1. 지역 간 고용창출역량 비교 .....	61
1) 고용창출역량 측정 방법 .....	61
2) 지역 간 고용창출의 양적 측면 비교 .....	63
3) 지역 간 고용창출의 질적 측면 비교 .....	65
2. 고용창출역량 유형별 특성 .....	67
1) 고용창출역량의 유형 분류 .....	67
2) 고용창출역량 유형별 업종 특성 비교 .....	71
3. 소결 .....	80
<b>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b>	<b>83</b>
1. 요약 .....	83
2. 연구의 시사점 .....	86
<b>■ 참고문헌 .....</b>	<b>89</b>
<b>■ Abstract .....</b>	<b>96</b>



## 표 목 차

표 1-1. 경제총조사 개요 및 항목 .....	5
표 1-2. 연구 분석 방법 .....	7
표 2-1. 가젤형 기업의 정의 및 내용 .....	12
표 2-2. 가젤형 기업의 정의 구성요소 .....	15
표 2-3. 입지결정요인 .....	22
표 2-4. 가젤형 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	28
표 3-1. In Birch Index에 따른 도수분포표 .....	35
표 3-2. 가젤형 기업 추출과정 .....	38
표 3-3. 기업유형별 평균 종사자 수 변화 비교 .....	38
표 3-4. 기업규모별 가젤형 기업 분포 변화 .....	39
표 3-5.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전통서비스업 분류 .....	41
표 3-6. 업종별 가젤형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	41
표 3-7. 제조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의 업종 분포 .....	42
표 3-8. 서비스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의 업종 분포 .....	44
표 4-1. 가젤형 기업의 권역별 분포 .....	48
표 4-2. 제조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의 권역별 분포 .....	49
표 4-3. 제조업 주요 업종별 가젤형 기업 종사자 분포 .....	52
표 4-4.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 권역별 분포 .....	54
표 4-5. 지식기반서비스업 주요 업종별 가젤형 기업 종사자 분포 .....	57
표 5-1. 고용창출역량 측정 방법 .....	62
표 5-2. 지역 간 고용창출 및 고용창출율 비교 .....	64
표 5-3. 지역 간 1인당 부가가치 변화 비교 .....	65
표 5-4. 고용창출역량 유형별 지역 분류 .....	70
표 5-5. 고용의 양, 질이 양호한 유형의 업종 특성 .....	72
표 5-6. 고용의 양은 열악, 질은 양호한 유형의 업종 특성 .....	73
표 5-7. 고용의 양, 질이 열악한 유형의 업종 특성 .....	75

표 5-8. 고용의 양은 우수, 질은 열악한 유형의 업종 특성 .....	76
표 5-9. 유형별 상위 5위 특화 업종 비교 .....	78

## 그 립 목 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9
그림 2-1. 신생기업 진입 및 시장경쟁과정 .....	17
그림 2-2. 창업이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 .....	18
그림 2-3. 순 일자리 창출 변화정도 산출 .....	19
그림 3-1. 자연로그 변환 전·후 분포패턴 .....	34
그림 3-2. 순위규모법칙에 기초한 ln Birch Index 분포곡선 .....	36
그림 3-3. ln Birch Index에 따른 히스토그램 .....	36
그림 4-1. 광역경제권별 가젤형 기업 분포 .....	48
그림 4-2. 제조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 종사자 분포 .....	50
그림 4-3. 제조업 주요 업종별 가젤형 기업 종사자 분포 .....	53
그림 4-4.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 종사자 분포 .....	55
그림 4-5. 지식기반서비스업 주요 업종별 가젤형 기업 종사자 분포 .....	58
그림 5-1. 지역별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 및 고용창출율 .....	64
그림 5-2. 지역별 가젤형 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변화(2010년-2015년) .....	66
그림 5-3. 고용창출역량 유형화 .....	68
그림 5-4. 고용창출역량 유형별 공간 분포 .....	69

# 제 1 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경기침체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실업’ 문제가 심각한 현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실업’과 관련하여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다. 최근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는 개선되지 않아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자,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고, 그 결과 ‘고용 창출’은 국가 및 지역적 차원에서 당면한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2013년에 「고용률 70% 로드맵」이라는 방향을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대기업 중심에서 탈피하고 내실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고용률을 제고함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시도하였다(고용노동부, 2016). 같은 맥락에서 창조경제라는 기조 하에 창업에 대한 지원정책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이 정책이 고용 성장에 미치는 실효성은 매우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창업률은 높지만 생존율이 높지 않아 고용성장에는 미치는 기여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박재성, 2014). 즉, 일자리 창출의 지속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로 매년 신설되는 기업들은 많지만 기회형(혹은 혁신형) 창업이 아닌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면서 일자리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하여 지속적으로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가젤형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가젤

형 기업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입증되어 왔으며, 또한 가젤형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가젤형 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2014년 「가젤형 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매년 500개의 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려는 계획과 가젤형 기업의 설비확대, 투자재원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을 세웠으며,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가젤형 기업 우대보증」을 통해 보증지원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보증료를 일정부분 차감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이처럼 고용창출의 동력이자 구심체 역할을 하는 가젤형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 차원에서 가젤형 기업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도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젤형 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가젤형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가젤형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가젤형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여 지역의 고용창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이질적인 가젤형 기업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차원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수립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젤형 기업이 다양한 산업의 사업체들로 구성되어 있고(Acs et al., 2008b ; Birch et al., 1994 ; Henrekson et al., 2010 ; NESTA, 2009 ; Schreyer, 2000), 산업별로 입지적 특성이 다를 것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가젤형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업종별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업종별로 입지현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 업종별로 공간분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젤형 기업의 업종별 입지특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각 지자체들이 가젤형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귀결되지 않으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적 차원과

질적 차원에서 모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가젤형 기업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가젤형 기업의 특성, 성공요인 및 성과 등을 연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뿐 가젤형 기업의 업종별 입지현황이나 지역별로 일자리 창출 역량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일자리 창출에 주목하여 각 지역에 입지한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역량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가젤형 기업들 구성하고 있는 업종과 가젤형 기업의 전반적인 공간분포를 업종별로 파악한 후, 지역 단위에서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역량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젤형 기업의 업종별 분포현황을 토대로 가젤형 기업의 전반적인 업종구성 및 주요 업종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각 업종별로 입지적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 가젤형 기업의 업종별 공간분포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과정에 있어서 업종별로 가젤형 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체 수가 작다는 것을 고려해 가젤형 기업의 종사자 분포 패턴에 초점을 맞추어 가젤형 기업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업종별로 상대적 우위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지역 단위에서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 역량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양적 특성과 질적 특성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고 분석기간 동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간 차별적인 특성을 분석한 후, 위 내용을 토대로 고용창출역량의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유형별로 고용창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고용창출 역량 유형별 업종 특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가젤형 기업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업종별 현황과 특정 업종 내에서 해당 지역이 지니고 있는 상대적 우위성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각 지역의 고용창출역량을 파악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경제총조사」 원시자료로, 지역별 전 산업에 대한 자료 및 산업 내 종사자 수에 관련된 데이터이다.

본고에서는 가젤형 기업을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이면서, 성장하는 기업 내 고용성장지수(Birch index)가 상위 10%인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성장하는 기업이란 고용성장지수로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계산했을 때, 1보다 큰 양의 값을 가지는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없는 성장’ 등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저성장 기조 하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성장하는 기업을 추출하려는 목적으로 고용을 지표로 활용하여 절대적 증가량과 상대적 증가율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합성지수를 토대로 성장기업의 상위 10%에 속한 고성장기업을 가젤형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위의 정의를 바탕으로 자료 구득이 가능한 데이터 가운데 가장 최근 자료인 2010년과 2015년 데이터를 활용하여<sup>1)</sup>, 2010년과 2015년 모두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1) 가젤형 기업 추출을 위해서는 비교 정태적 관점에서 두 시점에 대한 비교가 필요한데, 구득이 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가 2015년 데이터이기에 이를 활용하였다.

표 1-1. 경제총조사 개요 및 항목

구분		내용
경 제 총 조 사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의 종사자 수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li> <li>표준산업분류 내 21개 산업대분류 가운데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제외</li> </ul>
	조사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년 주기</li> </ul>
	조사항목 (공통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영업기간, 사업 실적,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산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결산마감월</li> </ul>

출처: 통계청(2015)을 바탕으로 내용 정리

공간적 범위는 가젤형 기업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전국적인 차원 혹은 16개 시·도(광역지자체)를 범위로 설정한 것과는 달리 전국 시·군·구 단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내용적 범위로는 시간적 범위 내 기준년도와 최종년도 사이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취지와 다른 산업은 제외하였다. 즉, 「경제총조사」 자체적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문에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취지에 벗어나는 공공기관, 학교, 협회 및 단체 등은 제외하였다. 한편 연구 목적에 따른 분석을 위해, 행정구역, 창설연월, 산업분류, 사업체 구분, 종사자 지위 별 종사자 수, 급여액, 사업 실적 등을 활용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차원에서 가젤형 기업의 분포특성을 파악하고 지역단위로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 역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가젤형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들을 고찰함으로써 기존 연

구의 가젤형 기업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였고, 특히 가젤형 기업을 정의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론적 측면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의 가젤형 기업에 대해 정의하였다. 또한 창업이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을 통해 가젤형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창업과 상호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연구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또한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가젤형 기업의 특성을 어떤 관점에서 파악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에는, 앞서 제시한 연구 목적에 따라 세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가젤형 기업의 업종 구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다양한 업종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춰 여러 하위 업종들의 종사자 수 비중을 분석하여 주요 업종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주요 업종에 따라 지역 간 일자리 창출 정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업종별로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일자리 창출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 업종별 공간분포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국 시·군·구를 범위로 하여 지역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가젤형 기업의 지역 간 차별적인 특성을 고용기회의 변화를 측정하는 양적 특성과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계산하는 질적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고용창출 역량에 기초해 지역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유형 별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유형에 속한 지역들의 업종특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1-2. 연구 분석 방법

연구목적	분석방법(기준)
1. 가젤형 기업의 주요 업종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대분류에 따른 가젤형 기업의 업종구성 파악</li> <li>• 가젤형 기업을 구성하는 업종별 비중을 바탕으로 제조업,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 파악 및 현황 분석</li> </ul>
2. 가젤형 기업의 업종별 공간 분포 차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젤형 기업의 전반적인 공간 패턴 분석</li> <li>• 제조업에 속하는 가젤형 기업 종사자 분포</li> <li>•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속하는 가젤형 기업 종사자 분포</li> </ul>
3. 일자리 창출 역량의 관점에서 지역 간 차별적인 특성 분석 및 유형화	<p>양적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가젤형 기업에 의한 고용창출물 (고용기회)</li> </ul> <p>질적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가젤형 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변화 (노동생산성)</li> </ul>

##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를 크게 6장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먼저 1장에서는 심각한 실업난과 저성장의 흐름 속에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해지는 한편, 고용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창업 부문에서 기회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면서 일자리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젤형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을 설명하였고, 지역 경제에서 가젤형 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업종, 지역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가젤형 기업의 차별적인 분포패턴을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간 차별적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가젤형 기업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기존연구와 본 연구가 어떤 차별성을 지니는지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직 국내에서는 가젤형 기업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특히 가젤형 기업을 공간적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며, 지역관점에서 이루어진 일부 연구에서는 전 산업에 대해 분석하지 않아 분석결과

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자세히 고찰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젤형 기업을 추출하여, 공간적 차원에서 어떤 차별적인 패턴을 보이는지를 파악하고, 가젤형 기업의 특성을 전국 시·군·구를 범위로 분석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두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본고에서 설정한 가젤형 기업의 정의를 바탕으로 전국 사업체 가운데 가젤형 기업을 추출하였고, 추출한 가젤형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업종들의 비중을 바탕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추어 각 업종을 구성하는 주요 업종에 대해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종사자 분포에 주목하여 가젤형 기업의 공간 분포를 파악하는데 주요한 목적을 두었다. 첫째 가젤형 기업 전체의 지역 간 분포를 가시적으로 파악하여 가젤형 기업의 전반적인 불균형적 공간 패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주요 업종별 공간분포를 파악해 업종별로 지역이 지니고 있는 상대적 우위성 및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5장에서는 고용창출 역량에 주목하여 가젤형 기업의 일자리 창출 특성을 지역 단위에서 비교하고자 하였다. 먼저 고용창출 역량을 양적 특성과 질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지역 간 가젤형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고용창출 역량에 기초해 가젤형 기업이 입지해 있는 지역들을 유형화하였으며, 고용창출 역량 유형별로 업종특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앞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가젤형 기업의 업종 구성, 공간적 차원에서 가젤형 기업의 종사자 분포패턴, 지역차원에서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 역량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지역차원에서의 일자리 창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흐름도는 그림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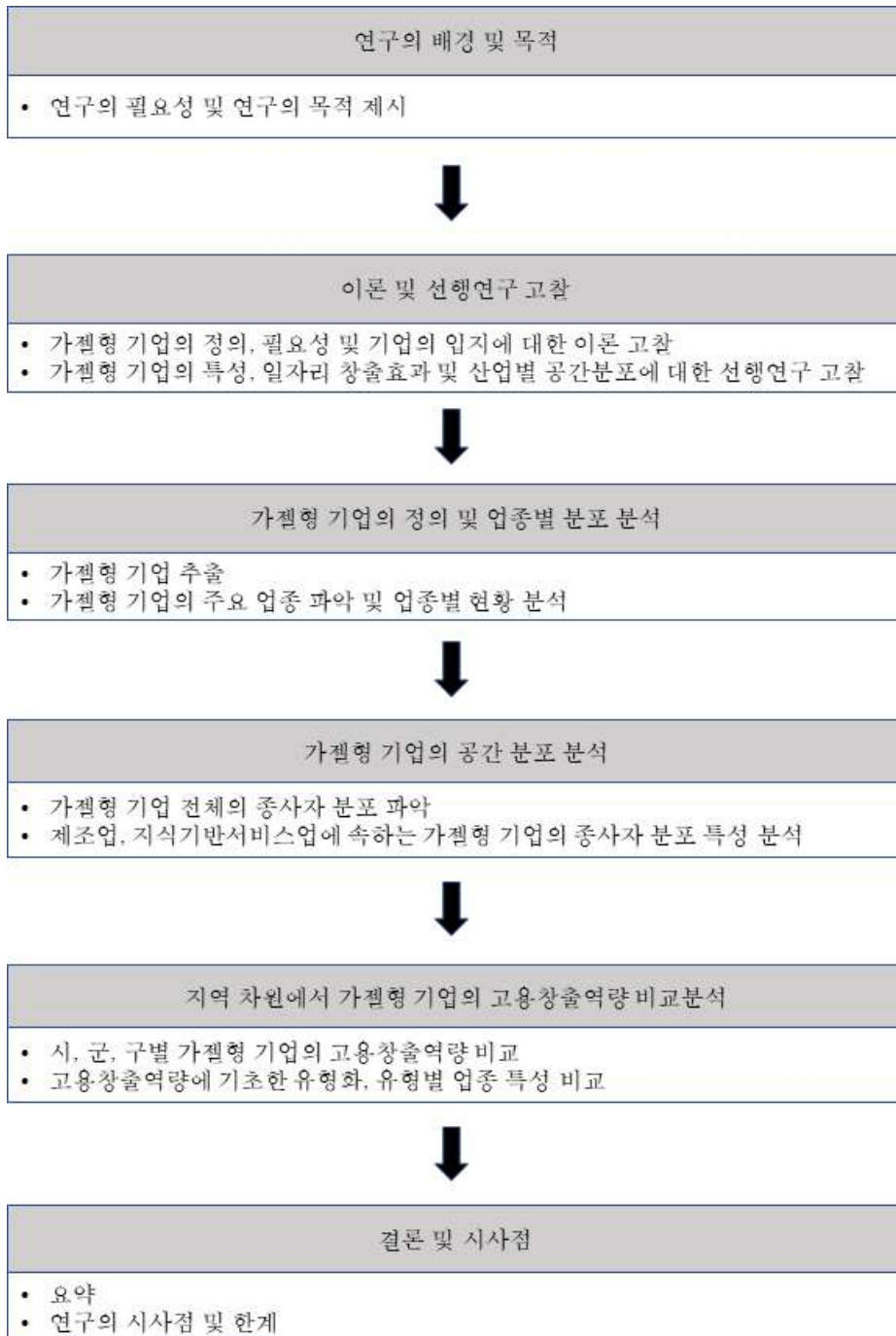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이론적 배경

#### 1) 가젤형 기업의 개념적 정의

가젤형 기업(Gazelle firm)이란 고용 또는 매출액의 증가속도가 빠른 기업, 즉 고성장기업을 일컫는 말이다. 가젤형 기업이라는 용어가 확산된 배경에는 Birch et al.(1994)의 연구가 있다. Birch et al.(1994)는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원천은 높은 혁신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가진 소수의 기업’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소수의 기업을 가젤형 기업이라고 지칭하였다. 이후 가젤형 기업은 다양한 연구에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고성장기업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Acs et al., 2008 ; Ahmad, 2006 ; Autio et al., 2002 ; Henrekson et al., 2010). 가젤이란 빠르게 달리면서 점프력 또한 좋은 영양류의 일종을 말하며, 빠르게 성장하며 고용 창출효과 또한 뛰어난 기업의 모습이 가젤의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가젤형 기업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가젤형 기업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 일반화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Henrekson et al., 2010). 가젤형 기업은 표 2-1과 같이 연구의 목적 및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고성장 기업(high-growth firms)· 고영향 기업(high-impact firms) 등으로 용어를 달리하여 표현되기도 한다.

Birch et al.(1994)를 비롯하여 이와 비슷한 시점의 연구에서 가젤형 기업은 매출액(Sales)을 지표로 활용하여 정의되었다. 이후 Davidsson et al.(1997)는 매출액을 척도로 정의할 경우, 가젤형 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산출된다는 한계점을 지적하며 고용(employment)을 척도로 하여 정의하였다. 한편 Ahmad(2006, OECD)는 고성장기업을

초기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이면서 3년 연속 고용자 수가 연평균 20% 성장한 기업으로 정의하였는데, 초기 종사자 수 기준을 10인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기업의 고용증가율 변동성을 감안한 것이다.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일 경우, ‘절대적 수’의 증가 정도에 비해 ‘상대적 비율’이 크게 변동한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Ahmad(2006)는 가젤형 기업의 정의에 기업 업력이 5년 이하인 기업이라는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고성장 기업과 가젤형 기업의 정의에 차이를 두었다. 이후 다양한 연구들이 Ahmad(2006)의 연구를 활용하여 가젤형 기업을 정의하였다(Deschryvere, 2008 ; NESTA, 2009). Acs et al.(2008b)는 Birch et al.(1994)의 연구를 비롯한 기존 연구에서 가젤형 기업의 정의에 고용 증가효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지적하며 매출액 및 고용을 모두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Daunfeldt et al.(2010)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가젤형 기업에 대해 고용, 매출, 부가가치, 생산성 등 4가지 지표를 활용하여 9가지 정의로 분류하였고, 9가지 정의에 의해 추출되는 가젤형 기업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장 지표가 아닌 ‘절대 수치’ 혹은 ‘상대 수치’의 활용 여부라고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여느 연구나 정의와 무관하게 가젤형 기업이 고용, 생산성, 매출액 등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정의에 따라 분석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연구에서는 각 연구에 따라 차별적으로 가젤형 기업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젤형 기업 여부 및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연구과정에서 가젤형 기업에 대해 정의하는 것은 연구의 시작이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론적 관점에서 가젤형 기업의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별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Delmar et al.(1997)는 성장 척도 및 측정방식 간 이질성으로 인해 성장 측정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기업 성장을 측정함에 있어서 정확하고 적절한 측정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Delmar et al.(1997)를 포함하여 다수의 연구에서는 가젤형 기업의 정의

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Birch, 1987 ; Delmar et al., 2003 ; Deschryvere, 2008 ; Henrekson et al., 2010).

표 2-1. 가젤형 기업의 정의 및 내용

연구자	명칭	정의 및 내용
David Birch & James Medoff (1994)	Gazel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매출액이 4년 간 20%이상 성장, 기준 연도 매출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li> <li>가젤기업을 분류함에 있어서 기업규모보다는 높은 혁신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더 중요시함</li> </ul>
Storey (1996)	Ten percen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매출액이 4년 간 매년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고, 매출액이 5백만-1억 파운드인 기업</li> <li>기업 업력이 짧을수록 많이 분포함</li> </ul>
Davidsson et al. (1997)	High-growth fir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연평균 고용증가량이 가장 높은 상위 10퍼센트의 기업, 최종 연도 종사자 수가 20명 이상인 기업</li> <li>상당한 역할은 아니지만 고성장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li> </ul>
Autio et al. (2000)	Gazel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3년 연속 매출액이 최소 50% 이상 증가하면서 최종 연도에 매출액이 FIM 1 million 이상인 기업</li> <li>가젤형 기업은 초기 연도에 비해 총 고용이 약 400% 이상 증가</li> </ul>
Schreyer (2000, OECD), France	High-growth fir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성장하는 기업의 상위 10%</li> <li>고성장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함</li> </ul>
Schreyer (2000, OECD), Spain	High-growth fir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모든 기업의 상위 10%</li> <li>고성장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함</li> </ul>
Davidsson et al. (2003)	High-growth fir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연평균 고용증가량이 가장 높은 상위 10%의 기업</li> <li>소수의 고성장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음</li> </ul>
Ahmad (2006, OECD)	Gazel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초기 종사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3년 연속 고용자 수가 연평균 20% 성장한 기업이며, 기업 업력이 5년 이하인 기업</li> <li>가젤형 기업과 고성장 기업을 기업 업력을 기준으로 분류</li> </ul>
Deschryvere (2008)	High-growth fir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초기 종사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3년 연속 고용자 수가 연평균 20% 성장한 기업</li> <li>고성장 기업들은 순 일자리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li> </ul>

Acs et al. (2008a)	Gazel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초기연도에 종사자 수가 20~499명인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li> <li>규모가 큰 지역, 대도시권 지역에 입지한 가젤형 기업은 장기적으로 고용 창출을 달성</li> </ul>
Acs et al. (2008b)	High-impact fir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지난 4년 간 매출액과 고용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기업</li> <li>모든 산업, 모든 지역 내에 분포</li> </ul>
NESTA (2009)	High-growth compan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10인 이상의 기업으로 최근 3년 간 연평균 20% 이상의 고용 성장이 이루어진 기업</li> <li>소수의 고성장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li> </ul>
Daunfeldt et al. (2010)	High-growth fir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퍼센트의 기업</li> <li>고성장 기업을 정의함에 있어서 고용, 매출액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생산성 지표를 활용해 9가지 정의로 제시</li> </ul>

출처: Henrekson et al.(2010) 참조하여 추가함

가젤형 기업의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① 성장 지표, ② 성장 측정방식, ③ 성장 측정기간 및 주기로 나눌 수 있다(Henrekson et al., 2010). 먼저, 성장지표로는 고용· 매출액· 생산성· 부가가치· 이익· 시장 점유율· 총 자산 가치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매출액과 고용 지표가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같은 산업 내에서만 측정되어야 한다는 단점 때문에, 그리고 총 자산 가치는 산업의 자본 집적과 관련이 있다는 단점 때문에 잘 사용되고 있지 않다(Delmar et al., 2003). 한편 고용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이고, 반면 총 자산 가치와 매출액 변화는 모두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연구도 있다(Delmar et al., 1997).

다음으로, 성장 측정방식으로는 고용자 수를 바탕으로 측정하는 ‘절대적 척도’, 고용 증가율로 계산하는 ‘상대적 척도’, 고용자 수의 한계치(Threshold)를 설정하고 고용증가율로 측정하는 ‘복합적 척도’, 그리고 고용성장지수(Employment Growth Index, E)가 있다. 절대적 척도 혹은 상대적 척도를 선택하는 것은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절대적 척도의 경우 대기업에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상대적 척도는 중소기업에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Almus, 2002).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지표를 함께 사용하거나 고용성장지수와 같이 지표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합성지표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Delmar et al., 2003). 고용자 수의 최소치를 통해 기업규모의 한계치를 설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편향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다(Deschryvere, 2008).

OECD(2002)는 기업규모의 한계치를 10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최소치 혹은 한계치로 설정되는 특정 수치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지만,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일 경우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정도에 비해 고용 증가율의 변동성이 크다는 한계점 때문에 국내·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종사자 수 10인 이상을 한계치로 설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계치로서 그 기준이 보편화되고 있다. 한편 고용성장지수의 경우 상대적 척도와 절대적 척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Birch(1987)가 만든 성장척도이다. 편파성을 제거하여 규모가 다른 기업들 간 비교가 가능하기 위하여, 고용성장지수를 ‘절대적 성장(고용자 수의 변화)과 상대적 성장(고용률의 변화)의 곱’, 즉  $E=(X_t - X_{t0}) \times (X_t / X_{t0})$ 에 의해 계산하였다. 여기서  $X_t$ 는 분석대상 최종연도의 종사자 수이고,  $X_{t0}$ 는 분석대상 초기연도의 종사자 수이다. Birch(1987)는 종사자 수가 20명 증가하고, 고용률이 100퍼센트 성장한 기업과 종사자 수가 80명 증가하고, 고용률이 25퍼센트 성장한 기업의 고용 효과는 ‘고용성장지수 20’으로 같다는 것을 예로 제시하며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장 측정기간 및 주기로는 기업의 성장을 매년 측정하거나 최종연도와 초기연도 간 차이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의 성장은 성장 측정기간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성장 측정기간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존재한다(Henrekson et al., 2010). 또한 이와 관련해 Delmar et al.(1997)는 기업의 성장이 단기변화와 장기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직 분석기간



표 2-2. 가젤형 기업의 정의 구성요소

기준	구성요소
성장 지표	매출액, 고용, 이익, 시장점유율, 총 자산 가치 등
성장 측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자수(절대적 척도)</li> <li>• 고용증가율(상대적 척도)</li> <li>• 고용자수 한계점 설정, 고용증가율(복합적 척도)</li> <li>• 고용성장지수(Employment Growth Index)(합성척도)</li> </ul>
성장 측정기간 및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연속(예: 3년 연속 증가, 4년 연속 증가 등)</li> <li>• 최종연도와 초기연도 간 차이(예: 4년 간, 5년 간)</li> </ul>

출처: Delmar et al.(1997) 참조하여 추가함

(측정기간)과 관련하여 어떤 기간이 왜 선호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대체로 각 연구마다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분석기간을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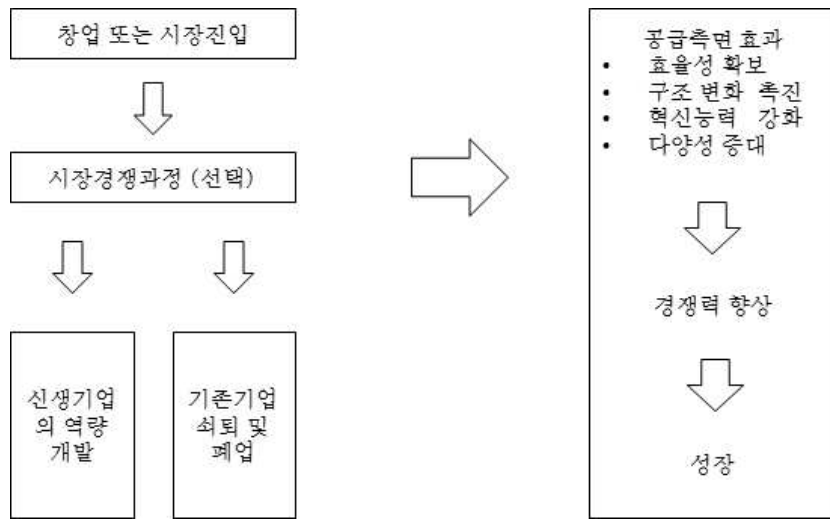
## 2) 창업이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

Schumpeter(1942)는 기존의 것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가 도전 정신’이 경제 성장 및 고용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창업을 중요시하게 된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창업이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증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창업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 연도 간 고용창출 성과를 직접 측정하는 정태분석(정태분석, 비교정태분석)과 시차를 두고 창업이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동태분석이 활용되었다(조덕희, 2014). 이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정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현 시점의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 고용 변동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창업이 고용창출에 있어 미치는 영향력을 장기적인 시차를 두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van Stel & Storey, 2004 ;

이동주 외, 2011).

이를 구조화한 모델은 그림 2-1과 같으며, Fritsch and Muller(2004)는 Almon 시차모형을 활용하여 창업이 고용 효과에 미치는 효과를 시차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효과로 나누어 ①직접효과(Direct effect), ②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③공급측면효과(Supply-side effect)로 구분하였다. 직접효과란 신생기업이 진입함에 따라 즉각적으로 직접적인 고용성장을 유발하는 효과를 의미하고, 구축효과란 시장의 경쟁 원리에 따라 진입했던 창업기업이 폐업으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신생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기존기업이 폐업하게 되어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말하며, 공급측면효과란 적자생존원리에 따른 경쟁에서 생존한 기업은 궁극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되어 향후 고용증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를 정리하면, 창업이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에 따른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총 효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림 2-2를 통해 신생 기업의 직접 효과는 시장에 진입한지 얼마 경과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효과가 크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간접효과의 영향력이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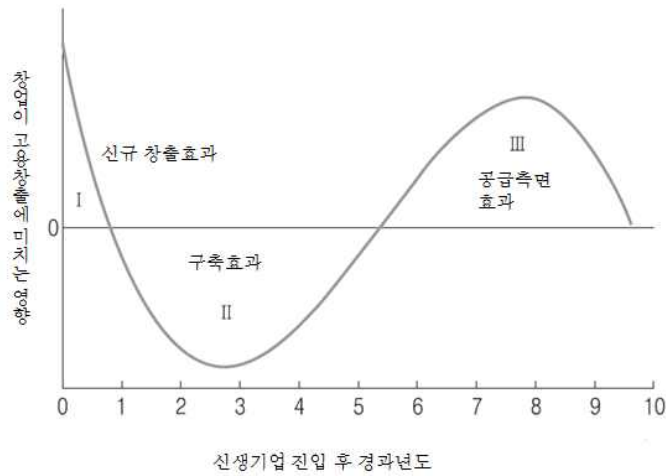
많은 연구들에서는 창업이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위의 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김원규, 2012 ; 이동주 외, 2011 ; 이운재, 2009 ; Acs et al., 2008 ; Baptista et al., 2008 ; Baptista et al., 2011 ; Fritsch and Muller, 2004 ; Fritsch, 2008 ; Fritsch et al., 2008 ; Fritsch et al., 2011 ; Muller et al., 2008 ; Van Stel and Storey, 2004 ; Van stel et al., 2008). 대다수의 연구들에서 창업과 고용창출 간 관계는 아래 그림 2-2와 같은 S자 형태 혹은 U자형을 나타낸다고 분석하였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역 U자형 패턴을 띠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분석결과들은 국가, 시점에 따라 다르게 도출되었다.



출처: Fritsch and Muller(2004), p.962.

그림 2-1. 신생기업 진입 및 시장경쟁과정

일부 연구에서는 지역특성 및 업종에 따른 신생기업 진입과 고용성장 간 관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Fritsch et al.(2008)는 창업의 고용성장효과가 경제활동의 밀집정도가 높은 지역에서 크다고 분석하였고,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지역생산성이 높을수록 고용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Fritsch(2008)는 혁신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공급측면효과가 크다고 파악하였고, Muller et al.(2008)는 경제적으로 활력이 있는 지역에서 창업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활력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영향력이 낮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Van Stel et al.(2008)는 도시화 수준이 높은 곳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Baptista et al.(2011)는 업종에 따른 차이와 관련해서 분석하였는데, 지식기반업종 기업들의 창업이 고용변화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경제 활력· 혁신정도· 도시화 수준· 첨단산업 여부는 고용 성장과 양(+)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에서의 창업이 지역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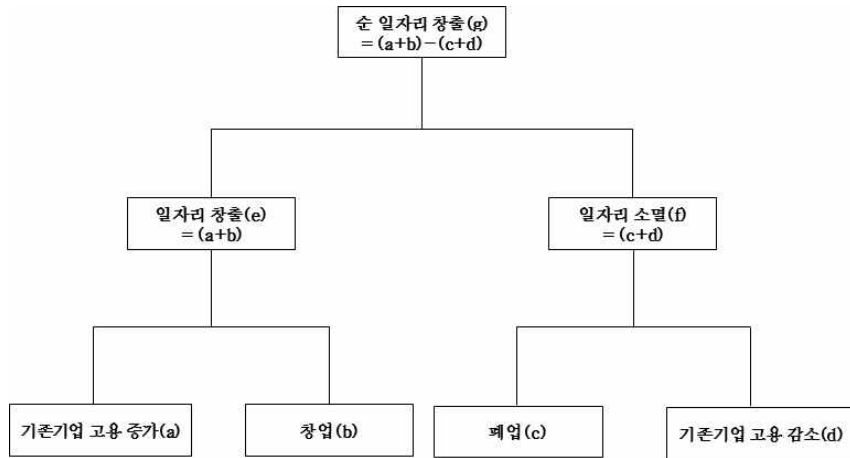
출처: Fritsch and Mueller(2004), p.969.

그림 2-2. 창업이 고용 성장에 미치는 영향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창업은 반드시 고용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지역에서의 창업은 지역 성장에 있어서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Fritsch et al., 2008). 이는 일자리 창출 수준을 제고함에 있어서 신생기업과 기존기업(지속기업)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그림 2-3 참조).

Fritsch and Muller(2004)는 창업에 의한 긍정적인 공급측면 효과의 발생이 반드시 창업기업의 성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신생기업이 기존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경우 창업기업들이 폐업하게 되더라도 긍정적 공급측면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궁극적인 고용 성장에 있어서 기존기업 고용 증가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해, Parker et al.(2005)는 높은 창업률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젤형 기업을 발굴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하며, 고용 성장에 있어 지속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가젤형 기업에 대해 강조하였다.

Geroski(1995)는 창업의 한계점으로 신생기업의 생존율이 낮고, 기존기업에 필적할 만한 규모에 도달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출처: 윤윤구 외(2009), p.6.

그림 2-3. 순 일자리 창출 변화정도 산출

지적하였다. 또한 조덕희(2014)는 높은 창업률이 우수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식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창업률은 높지만 소멸률 또한 높고, 생존율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이동주 외(2011)는 무엇보다 양질의 창업의 바탕이 되고, 적자생존원리에 따라 시장이 운영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신생기업의 진입으로 인한 직접효과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발되는 간접효과가 중요하고, 여기서 간접효과가 생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고용성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꾸준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가젤형 기업은 고용을 늘리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라 할 수 있다.

### 3) 기업의 입지결정이론

기업의 입지는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생산 활동을 위한 장소를 결정하는데는 원료·노동력·자본·토지 등의 생산요소와 생산 행위의 결과물인 제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시장의 특성, 국지화 경제 혹은 도시화 경제를 의미하는 집적경제, 환경요소, 행태적 요인, 정부의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다(이희연, 2009). 이와 같은 기업 입지결정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후로,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를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전통적인 입지론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실현하는 방법에 따라 기업의 생산비용 최소화화에 중점을 두는 최소비용 이론과 수요 최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최대수요 이론으로 나눌 수 있으며, 두 가지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이론 또한 존재한다. Weber(1929)는 생산자가 항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하며, 기업의 최적입지에는 운송비·노동비·집적경제 등이 영향을 미치고 각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유동적이라고 주장하였다. Lösch(1954)의 경우,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있어서 비용 최소화만을 고려하는 것은 시장수요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최소비용 이론에 대해 비판하며 기업의 최대수요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두 가지 측면 모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비용과 수요를 통합한 이론 또한 존재하였다(이희연, 2009에서 재인용).

하지만 고전적 산업입지론의 경우, 완전한 정보를 가진 기업과 ‘합리적 경제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보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의 경우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박종화, 2013). 또한 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입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었던 반면 실제 생산 활동의 공간이 비경제적인 맥락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가의 개인 선호 등과 같은 기업가의 행태를 중요시하는 행태주의적 입지론이 도입되었다(박용규, 2004).

이후 생산방식의 패러다임이 대량생산 중심의 포디즘 형태에서 유연적인 생산체제를 추구하는 포스트 포디즘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경제체제는 지식기반경제로 변모하였다(이희연, 2009). 이에 따라 주력산업이 과거 전통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산업 등의 신산업으로 이동하면서,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원료·노동 등의 생산요소의 중요도가 감소하고 지식·혁신 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박용규, 2004).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신산업입지론이다. 신산업입지론에서는 비용의 관점에서 정량화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생산요소에 초점을 두었던 전통적 입지론과는 달리, 경제주체들 간의 관계 및 신뢰,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제도 및 문화 등 비경제적인 요소들을 강조하였다. 또한 비용 최소화보다는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에 집중하였다(김종중 외, 2009). 즉, 신산업입지론에서는 지식수준과 혁신능력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제도·문화·신뢰관계·네트워크 등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차별화된 특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이희연, 2009).

한편, Hayter(1998)는 실제로 기업이 입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통, 원재료, 시장, 노동여건, 외부경제, 에너지, 커뮤니티 기반시설, 자본, 토지 및 건물, 환경, 정부정책 등 11가지를 아래의 표 2-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Hayter(1998)는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정량화할 수 있는 양적 특징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특징들 또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하나의 결정요인을 양적 특징과 질적 특징으로 성격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기업의 입지결정요인은 공간적 규모에 따라 상대적인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표 2-3. 입지결정요인

입지결정요인	양적 특징	질적 특징
교통시설	• 화물요금	• 신뢰도, 빈도, 손상, 활용도
원재료	• 생산비용, 교통비용	• 안전, 품질
시장	• 교통비용, 서비스비용	• 대면접촉, 소비자 취향, 경쟁
노동여건	• 임금, 임금 외 혜택, 고용비용	• 태도, 노동조합, 기술, 형태, 이직률, 활용도
외부경제		• 외부경제(긍정적 외부효과, 부정적 외부효과), 노동 숙련도, 정보 공유, 공공서비스, 명성
에너지	• 비용	• 신뢰도, 다양성
커뮤니티 기반시설	• 자본, 세금	• 품질, 다양성
자본	1) 고정자본 • 건설비용, 임대료 2) 유동자본 • 자본조달비용	1) 고정자본 • 활용도, 투자시기 2) 유동자본 • 활용도
토지/건물	• 비용	• 규모, 형태, 접근성, 서비스, 투자 시기
환경	1) 편의시설 2) 정책 • 비용, 세금	1) 편의시설 • 노동자들의 선호도 2) 정책 • 지역주민 태도
정부정책	• 보조금, 벌금, 세금	• 태도, 안정성, 기업여건

출처: Hayter(1997), p. 84.

## 2. 선행연구 고찰

### 1) 가젤형 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가젤형 기업이 비 가젤형 기업과 어떤 차별적인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다수의 연구에서는 기업 규모· 기업 업력· 산업· 지역 차원에서 외적 특성을 분석하고 혁신· 인적자본· 조직 관점에서 내적 특성을 주로 파악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기업 규모와 기업 업력은 기업 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다. 여기서 성장은 일반적으로 이익이 아닌 고용



이나 매출액 측면에서의 성장을 의미한다(Moreno et al., 2007). 대개 기업 규모와 관련해서 ‘기업성장은 기업규모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Gibrat’s Law와 같이 성장 패턴이 특정 방향성이 없는지, 기업 규모와 기업 성장이 음(-)의 관계를 보이는지, 혹은 기업 규모와 기업 성장이 양(+)의 방향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Moreno et al.(2007)는 기업 규모가 가젤형 기업과 비 가젤형 기업 간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기업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검정하여 유의미한 인과관계임을 파악하였다. Almus(2002)는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성장률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최소 효율적인 규모(minimum efficient size)’에 도달하기 위해 성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근거로 뒷받침될 수 있다(Correa et al., 2003). 한편,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절대적인 ‘수’를 기준으로 측정될 때는 기업규모가 큰 기업의 중요도가 높고 상대적인 ‘비율’로 정의될 때는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의 중요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Daunfeldt et al., 2010 ; Schreyer, 2000). 이와 같이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Gibrat’s Law와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Wagner, 1992).

기업 업력과 관련해서 분석하는 것은 업력의 차이에 따른 기업 성장률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기업 업력과 기업 성장 간 관계를 설명하는데 뒷받침되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하나는 학습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다. 학습이론과 관련해, Jovanic(1982)은 기업 업력이 짧은 기업의 경우 기업 활동에 대한 비용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변동이 심한(variable) 성장률을 경험하지만, 기업 업력이 긴 기업은 학습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최적의 규모를 알고 있어 거의 변동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업가 정

신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업 업력이 짧은 기업들의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특성이 높은 성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된다(Shane et al., 2000). 위의 근거들과 같은 방향에서, 다수의 연구에서는 기업 업력이 짧을수록 고성장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권오형, 2011 ; Correa et al., 2003 ; Daunfeldt et al., 2010 ; Davidsson et al., 1997 ; Henrekson et al., 2010 ; Schreyer, 2000 ; Storey, 1996).

하지만 Moreno et al.(2007)는 기업 업력과 기업성장 간 관계는 유의미하지 못하다고 분석하였고, Almus(2002)도 기업 업력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파악하였다. 한편, NESTA(2009)는 기업 업력이 짧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고성장하는 경향은 있지만, 기업 업력이 짧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는 고성장기업(가젤형 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의 2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는 산업 혹은 지역의 관점에서 가젤형 기업의 분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산업 분포의 경우, 다수의 연구에서 가젤형 기업은 지식기반산업 등을 비롯한 첨단산업에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이 분포한다고 주장하였다(Acs et al., 2008b ; Birch et al., 1994 ; Henrekson et al., 2010 ; NESTA, 2009 ; Schreyer, 2000). 하지만 Davidsson et al.(1997)는 가젤형 기업이 성장하는 산업 부문에 많이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Almus(2002)는 가젤형 기업의 분포가 분석 시점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Almus(2002)는 동·서독으로 나누어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산업부문을 파악하였는데, 서독의 경우 전반적인 산업자체가 고성장 기업의 특성으로서 유의하다고 판단되지 않았고, 동독의 경우 분석 시점의 영향으로 기술집약적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산업이 아닌 통일 직후 건설 붐의 영향을 받은 산업들이 분석 결과 유의미하다고 파악되었다.

지역 분포의 경우, 일부 연구에서는 가젤형 기업이 지역 전반에 걸쳐 분포한다고 분석하였다(Acs et al., 2008 ; Schreyer, 2010).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지역 전반에 걸쳐 분포하는 것은 맞지만, 대도시권 및

도심부에 집중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김정홍 외, 2013 ; 서정대 외, 2011c ; Davidsson et al., 1997 ; Storey, 1996).

한편, 공간적 차원에서 가젤형 기업의 업종별 특성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김정홍 외(2013)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권역을 나누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해 업종별로 가젤형 기업의 분포패턴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조업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가젤기업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의 경우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가젤기업 비중이 높다고 파악되었다. 더 나아가 일자리창출능력이 높은 주력기간제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세부 업종에 국한할 경우, 지식기반산업의 경우 고급인력확보 등의 특성 때문에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가젤형 기업 비중이 높고 주력기간제조업의 경우 비수도권 비중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김정홍 외(2013)는 연장선상에서 광역시· 도 단위로 연구를 진행하여 서울과 대전의 경우 지식기반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울산의 경우 주력기간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광주의 경우 광산업· 가전산업 비중이 높다는 결과 또한 제시하였다.

가젤형 기업의 내적 특성의 경우에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가젤형 기업의 혁신능력이 가장 부각되었다. 여러 선행연구들은 가젤형 기업이 타 기업에 비해 기술혁신이 활발하고, 특허수가 많으며, R&D가 집약적이라는 사실을 통해 가젤형 기업의 혁신능력을 파악하였다(권오형 외, 2012 ; 박순홍 외, 2013 ; 이미순 외, 2015 ; 임채운, 2009 ; Birch et al., 1994 ; Schreyer, 2000). 이와 같은 특성은 Schumpeter(1942)의 주장과 연관이 있다. Schumpeter(1942)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개념을 소개하며, 경제성장을 위해서 혁신적인 태도와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낡은 것으로부터 탈피할 뿐만 아니라 기회를 개척하여 새로운 것을 도입함으로써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Schumpeter, 1942).

이와 관련해 OECD(2002)는 혁신· 조직 등의 관점에서 가젤형 기업

의 내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먼저 혁신과 관련해서, 고성장 기업은 일반적으로 고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고객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비 가젤형 기업에 비해 R&D에 투자하는 정도가 크고, 경쟁이 거의 없는 틈새시장뿐만 아니라 경쟁이 치열한 곳에도 진출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조직과 관련해서는, 가젤형 기업의 경우 중앙집권적인 조직 형태가 아닌 분권화된 조직 형태에서 기업 활동에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인센티브를 통해 종사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OECD, 2002). 한편, 이미순 외(2015)는 T-test를 통해 높은 인적자본 수준이 가젤형 기업의 고유한 특성인지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인적자본의 경우 일반 기업에 비해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또한 Almus(2002)는 인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고성장 확률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 2) 가젤형 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관한 연구

미국 경제학자인 Birch(1981)가 고용 창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영향력을 논하기 전, 당시 주류는 대기업들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었다(Kirchhoff et al., 1998). Birch(1981) 이후 고용성장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Birch et al.(1994)는 이전의 연구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아닌 가젤형 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젤형 기업을 분류함에 있어서 기업규모보다는 높은 혁신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중요시하였다. 이것을 기점으로, 고용 성장속도가 뛰어난 가젤형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서정대 외, 2011a ; 서정대 외, 2011b ; 조덕희, 2011 ; Acs et al., 2008b ; Autio et al., 2000 ; Birch et al., 1994 ; Deschryvere, 2008 ; NESTA, 2009 ; Storey, 1996 ; Schreyer, 2000).

Birch et al.(1994)는 전체 기업의 4%에 해당하는 가젤형 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의 60% 비중을 차지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고, Storey(1996)는 4%의 고성장 기업이 전체 고용 성장의 50%에 기여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 둘은 가젤형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Schreyer(2000)는 OECD 7개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7개국 모두 고성장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파악하면서 고성장 기업과 일반 기업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고성장 기업만의 차별적인 정책을 수행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Acs et al.(2008)는 전체 기업의 2~3%에 불과한 고영향 기업(high-impact firms)이 대부분의 순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매출 증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Deschryvere(2008)는 약 5%에 해당하는 고성장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약 90%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NESTA(2009)는 약 6퍼센트에 불과한 가젤형 기업이 새로이 창출된 일자리의 54퍼센트를 발생시켰다고 분석하였다. Henrekson et al.(2010)는 20개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가젤형 기업이 순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에 기여한다’는 가설의 사실여부를 파악하여 가젤형 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였고, 심지어 경기 불황기에도 가젤형 기업의 고용 성장은 두드러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국외 선행연구들은 가젤형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조덕희(2011)가 제조업 부문 개별 기업데이터(KISVALUE)를 활용하여 조사 대상 기업의 약 9.8%가 총 일자리 창출의 31%에 기여하였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고성장 기업이 고용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서정대 외(2011a)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4,683개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고성장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약 46%를 발생시켰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성장 기업과 같은 창업 이후 성장을 이어가는 기업이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2-4. 가젤형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구분	저자	일자리 창출효과
국내	조덕희(2011)	• 9.8%의 고성장 기업이 총 고용창출의 31.0%에 기여
	서정대·김선화 (2011a)	• 10%의 고성장 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46%에 기여
	— (2011b)	• 6.7%의 고성장 기업이 신규 고용 창출의 35.2%에 기여
국외	Birch et al. (1994)	• 4%의 가젤형 기업이 신규 고용 창출의 약 60%에 기여
	Storey (1996)	• 4%의 고성장 기업이 신규 고용 창출의 50%에 기여
	Schreyer (2000)	• 고성장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
	Autio et al. (2000)	• 고성장 기업이 기준 연도에 비해 일자리를 400% 이상 증가시킴
	Acs et al. (2008b)	• 전체 기업의 2~3%인 고영향 기업이 (High-impact firms) 대부분의 순 일자리를 창출
	Deschryvere (2008)	• 약 5%의 고성장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약 90%를 차지
	NESTA (2009)	• 6%의 고성장 기업이 신규 고용 창출의 54%에 기여

하지만 선진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고성장기업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정대 외(2011b)는 고성장기업의 비중은 높지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낮다고 주장하며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약 6.7%에 해당하는 고성장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35.2%를 차지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규모 이상 고성장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위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데, 위의 연구들에서 활용한 데이터 상 한계가 있어 가젤형 기업의 특성에 대해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덕희(2011)가 활용한 제

조업 부문 개별 기업데이터, 서정대 외(2011a)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데이터, 서정대 외(2011b)에 의해 사용된 광공업조사통계조사 데이터 모두 특정 산업 군에 속한 일부 기업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전 산업을 포괄한 일반화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지적 사항은 서정대 외(2011b)에 의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 3) 산업별 공간 분포에 관한 연구

산업별 공간분포를 분석한 기존 연구는 크게 성장의 동력으로 지식의 역할을 강조하는 지식기반산업을 대상으로 입지 분포를 분석한 연구(권영섭 외, 2002 ; 권재현 외, 2007 ; 박재홍, 2004)와 지식기반산업이 아닌 기타 산업에 초점을 맞춘 연구(김희철 외, 2015 ; 신우진 외, 2009)로 분류할 수 있다.

권영섭 외(2002)는 지역 간 지식기반산업의 분포를 비교하였는데, 지식기반산업의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분포패턴을 보이며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에 입지한 정도가 매우 높다고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지식기반산업을 업종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식기반산업 내 업종에 따라 입지적인 특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산업 육성을 위해 각 업종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재홍(2004)은 경기도를 공간적 범위로 지식기반산업을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두 업종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두 업종 간 대조적인 분포패턴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서울이라는 중심점으로부터 멀어지는 패턴을 보인 반면에,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과 인접한 지역으로 밀집하는 분포를 보인다고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입지패턴을 서울 내 고급인력이 많이 분포해 있고 서울 내 해당 산업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권재현 외(2007)는 지식기반산업 내 지식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지패턴은 기존의 연구에서 대도시권에 걸쳐 분포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서울에 집적된 분포패턴을 보인다고 분석하였고, 서울에 집적된 정도가 높은 것은 서울 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고급인력들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위의 연구들과 달리 신우진 외(2009)는 지식기반산업이 아닌 소매업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시를 지역적 범위로 하여 소매업의 공간분포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 분석 결과 소매업을 구성하는 49개의 소매업종 가운데 21개 업종이 군집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소매업종을 상업지들이 많이 입지해 있는 도심부에 많이 분포하는 업종, 주거지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도시 외곽에 밀집해 있는 업종, 특화된 업종을 바탕으로 특정 지역에 입지해 있는 업종으로 구분하였다.

김희철 외(2015)는 기존의 연구들이 특정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던 것과는 달리 정부에서 구상한 정책 산업을 바탕으로 분포패턴을 분석하였다. 신성장동력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 및 충청권이라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1995년부터 2009년을 시간적 범위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입지중심점을 바탕으로 산업별 입지현황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2005년까지는 지방분산정책의 영향으로 대체로 입지중심점이 서울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멀어지는 패턴을 보인 반면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에 따라 상이한 패턴을 보였다. 제조업 중심 업종은 대개 2005년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며, 서비스업 중심 업종은 서울에 중심점이 형성되는 형태로 패턴이 변화하였다.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가젤형 기업의 특성을 공간적 차원에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업종별로 가젤형 기업의 공간 분포를 파악



하고 더 나아가 가젤형 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 단위에서 고용창출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가젤형 기업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젤형 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분석하여 가젤형 기업을 구성하는 주요 업종을 파악한 후, 업종별로 공간분포 패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특정 산업 군에 한정하여 가젤형 기업을 추출했기 때문에 가젤형 기업을 구성하는 주요 업종을 전 산업 범위에서 파악하기 힘들고 가젤형 기업의 분포를 지역 혹은 산업 단위로 분석하는데 그쳤다는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대체로 선행연구에서 특정 산업에 속한 사업체에 국한해 공간분포를 분석했다는 점과도 차별성이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효과를 양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과는 차별적으로 가젤형 기업이 입지해 있는 지역 단위에서 고용창출 역량을 파악하려는 목적 하에 양적 특성과 질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 특성을 파악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 창출과 관련된 양적·질적 지표를 토대로 고용의 양적, 질적 변화에 주목하여 일자리 창출 역량에 따라 전국 시·군·구를 유형화한 후, 일자리 창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역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 창출의 역할이 점점 증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양적 차원과 질적 차원에서 둘 중 하나가 아닌 두 관점 모두에서 종합적으로 일자리 창출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제 3 장 가젤형 기업의 추출과 업종별 분포

### 1. 가젤형 기업의 정의 및 추출과정

#### 1) 가젤형 기업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가젤형 기업을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이면서, 고용성장지수(Birch Index)로 측정한 고용증가속도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성장기업 내 상위 10%인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귀결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신생기업에서 생계형 창업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한 제한적인 일자리 창출효과, 글로벌 금융 위기에 의한 기업성장 침체에서 비롯된 국가 및 지역경제의 저성장 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고용’ 지표를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가젤형 기업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가젤형 기업의 정의를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인 측정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특정 규모에 편향된 결과를 배제할 수 있는 측정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우선원칙으로 세웠다. 일반적으로 ‘비율’을 바탕으로 성장을 측정하는 상대적 척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편향된 결과를, ‘양’을 바탕으로 성장을 측정하는 절대적 척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기업에 편파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Almus,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Birch(1987)가 제시한 고용성장지수<sup>2)</sup>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고용성장지수가 절대적 성장(고용자 수의

---

2) 고용성장지수를 만든 Birch(1987)의 이름을 따서 Birch Index라고 부른다.

변화)과 상대적 성장(고용률의 변화)의 곱, 즉  $E=(X_t - X_{t0}) \times (X_t / X_{t0})$ <sup>3)</sup>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고용성장률과 고용증가량이 모두 반영된다는 특징을 고려하여 기업규모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이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은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 수 10인 이상이라는 한계치를 설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종사자 수가 지나치게 적을 경우 종사자 수가 약간만 변화해도 증가율이 높아 Birch Index가 매우 높게 측정되지만 실질적인 종사자 수의 변화 정도는 작아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가젤형 기업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한계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Ahmad(2006, OECD)가 종사자 수 최소 한계치로서 10인을 설정한 것이 대표적이고 그 밖에 여러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도 최소 한계치를 10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서정대, 2011c ; Deschryvere, 2008 ; NESTA, 2009). 종사자 수 10인은 종사자 수 한계치(threshold)에 대한 기준으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현행 「중소기업기본법<sup>4)</sup>」이 개정되기 전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법률에 의거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었고 이들은 일반적으로 경쟁력(혹은 자생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분석되었다. 가젤형 기업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쟁력(혹은 자생력)을 갖추어야 하고 중소기업 이상으로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종사자 수 10인 이상이라는 기준은 일정 수준 자생력을 갖는 사업체로서도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가젤형 기업 선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먼저 Birch Index를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분포패턴을 살펴보았다. Birch Index의 경우 그림 3-1에서 볼 수 있듯이 변량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특정 계급구간에 도수가 극도로 집중되어있어 도수의 분포

3)  $X_t$ : 분석대상 최종년도의 종사자 수,  $X_{t0}$ : 분석대상 초기년도의 종사자 수

4) 업종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을 달리한다.

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량의 분포를 안정화 시키고 보다 가시적으로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림 3-2와 같이 Birch Index를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분석 기간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성장기업 27,367개 사업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포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Birch Index를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 $\ln$  Birch Index)은 0에서 12 사이의 범위에 속해 있으며 그 중앙값은 약 2.05로 비대칭적인 분포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수분포표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3-1의 도수분포표를 보면, 첫 번째 구간(11~12)부터 여덟 번째 구간(4~5)까지의 구간에 속한 사업체에 비해 아홉 번째 구간(3~4)부터 열두 번째 구간(0~1)에 상당히 많은 사업체가 불균형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수분포표를 작성할 때 전반적인 분포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수들이 집중되어 있는 계급 구간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이희연, 2013). 하지만 본 연구에서 도수분포표를 구성한 목적은 가젤형 기업 선정을 위해 변곡점을 파악하기 위한 대략적인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급구간을 세분화하지 않고, 등 간격으로 범위를 설정해 표 3-1과 같이 도수분포표를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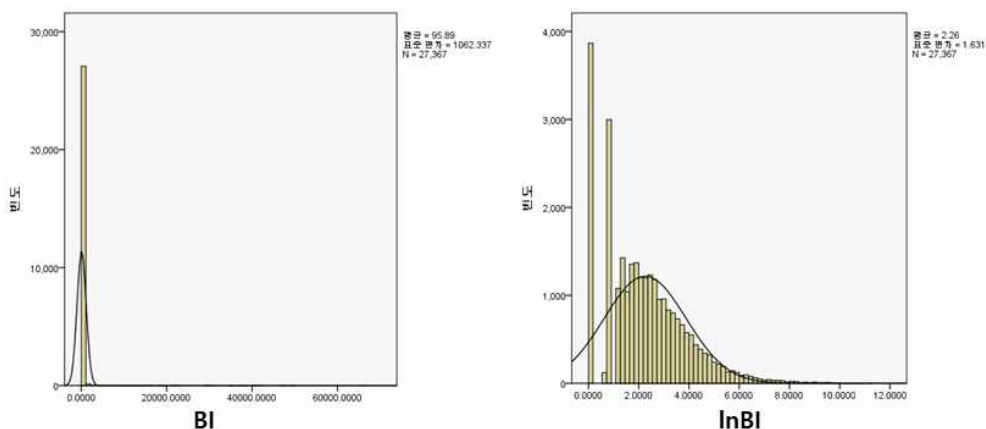


그림 3-1. 자연로그 변환 전· 후 분포패턴

표 3-1. ln Birch Index에 따른 도수분포표

계급수	계급구간범위	도수	상대도수	누적도수
1	11이상 12미만	1	0.0000	1
2	10 ~ 11미만	13	0.0005	14
3	9 ~ 10미만	44	0.0016	58
4	8 ~ 9미만	72	0.0026	130
5	7 ~ 8미만	175	0.0064	305
6	6 ~ 7미만	392	0.0143	697
7	5 ~ 6미만	922	0.0337	1,619
8	4 ~ 5미만	2,160	0.0789	3,779
9	3 ~ 4미만	4,027	0.1471	7,806
10	2 ~ 3미만	6,306	0.2304	14,112
11	1 ~ 2미만	6,269	0.2291	20,381
12	0 ~ 1미만	6,986	0.2553	27,367
합계		27,367	1.0000	

주) ln Birch Inde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제시, 상대도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그림 3-2를 통해서도 사업체의 불균형적인 분포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상술하면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능력이 높은 사업체(ln BI가 4 이상 12 미만인 구간에 속한 사업체)는 약 3,700개에 불과한 데 비해서 0 이상 4 미만인 구간에 속한 사업체는 약 23,000개가 분포하고 있다. 환언하면 구간 대비 사업체의 밀도 차이로 인해 ln BI 4를 변곡점으로 하여 경사의 기울기가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또한 그림 3-3의 히스토그램에서도 ln BI 4를 전후로 각 구간에 속한 사업체의 비중이 크게 달라진다. 이상의 내용들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Birch Index를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이 4 이상인 구간에 속한 사업체를 성장기업 가운데 성장속도가 두드러지는 고성장기업으로 판단하고 이를 가젤형 기업에 대한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젤형 기업과 비 가젤형 기업으로 분류하면, 가젤형 기업은 성장기업(27,367개 사업체) 내 약 14%, 전체 모집단(56,821개 사업체) 내 약 7% 정도이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젤형 기업을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 이면서, Birch Index로 측정한 일자리 증가 속도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성장기업 내 상위 10%인 기업<sup>5)</sup>’으로 일반화하여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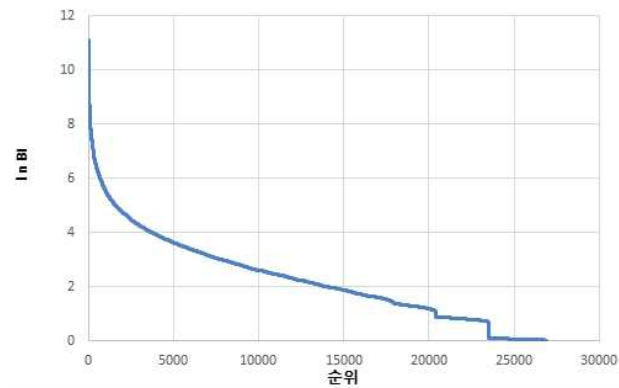


그림 3-2. 순위규모법칙에 기초한 In Birch Index 분포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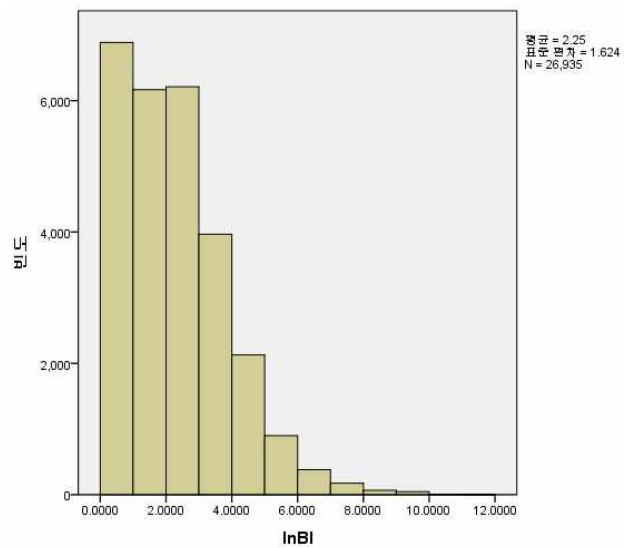


그림 3-3. In Birch Index에 따른 히스토그램

- 5) 가젤형 기업으로 추출된 3,779개의 사업체는 성장하는 기업의 약 14%에 해당하는 수치이지만, 편의상 이를 반올림하여 성장기업 내 상위 10%인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 2) 가젤형 기업 추출과정

가젤형 기업을 추출하기에 앞서, 본 연구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협회 및 단체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후 가젤형 기업 추출을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 통계청에 수록된 「경제총조사」 DB를 편집하였다.

우선 본고의 정의에 입각하여 가젤형 기업의 추출은 「경제총조사」 DB에 수록된 사업체 중 분석기간에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0년과 2015년 모두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사업체에 한정하였다<sup>6)</sup>. 즉 가젤형 기업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2010년과 2015년의 데이터 모두 필요하므로 2010년 이후 창업한 데이터, 그리고 2010년에는 존재하였지만 2015년 전에 폐업하여 2015년 「경제총조사」 DB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는 제외하였다. 또한 2010년 전에 창립하였지만,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2010년 DB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2015년 DB에는 존재하는 결측치도 제외하였다. 뿐만 아니라 분석기간 동안 데이터가 지나치게 차이 나는 경우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위의 과정을 거쳐 가젤형 기업의 추출은 경제총조사 DB에 수록된 56,821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경제총조사」 DB에서 종사자는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계약을 바탕으로 임금이 보장된 임금근로자’를 본고에서의 근로자로 정의하고, 사업체를 통해 고용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본고에서의 종사자 수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sup>7)</sup>와 기타종사자<sup>8)</sup>를 제외하고 상용

6) 경제총조사 DB 상 기업체 ID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 외 정보를 활용해 사업체를 추적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2010년 데이터와 2015년 데이터를 병합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추적이 불가한 약 1,800개의 데이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7)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이상 종사하는 사람(통계청, 2015)”

표 3-2. 가젤형 기업 추출과정

단계	내용
1단계	• 종사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체 제외
2단계	• 결측치 제외 • 2010년, 2015년 모두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체 제외 • 분석기간 동안 데이터 격차가 매우 큰 사업체 제외
3단계	• 총 종사자 수에서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 자영업주 제외 → 가젤형 기업의 추출 위한 본고에서의 종사자수 계산
4단계	• Birch index를 기준으로 성장기업 내 상위 10%인 기업 추출

종사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합한 수치로 계산하였다. 이를 토대로 분석 대상 56,821개 사업체 가운데 약 7%, 성장하는 기업 27,367개 사업체 가운데 약 14%에 속하는 3,779개의 사업체를 가젤형 기업으로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젤형 기업을 편의상 성장기업 내 상위 10%인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추출결과 가젤형 기업과 비 가젤형 기업의 차이가 두드러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가젤형 기업은 평균 종사자 수가 5년 간 약 87.0% 증가하여 2010년 130명에서 2015년 245명으로 기업규모가 약 1.9배 증가한 반면에, 비 가젤형 기업의 경우 평균 종사자 수가 43명에서 37명으로 감소하였다. 즉, 분석기간 동안 두 기업 유형의 고용 격차는 더 심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3. 기업유형별 평균 종사자 수 변화 비교

(단위: 명, %)

기업유형	평균 종사자 수		변화(2010년-2015년)
	2010년	2015년	수(비율)
가젤형 기업	130	245	115(88.5)
비 가젤형 기업	43	37	-6(-14.0)

주) 평균 종사자 수 변화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종사자 수 증가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8)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으며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통계청, 2015)”



표 3-4. 기업규모별 가젤형 기업 분포 변화

(단위: 개, %)

기업규모	가젤형 기업 수(비중)		변화(2010년-2015) 수(비중)
	2010년	2015년	
10명 이상 30명 미만	1,532(40.5)	11(0.3)	-1,521(-40.2)
30명 ~ 100명 미만	1,224(32.4)	1,694(44.8)	470(12.4)
100명 ~ 300명 미만	720(19.1)	1,407(37.2)	687(18.1)
300명 ~ 1,000명 미만	236(6.2)	542(14.3)	306(8.1)
1,000명 이상	67(1.8)	125(3.3)	58(1.5)

가젤형 기업을 기업규모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종사자 수가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대폭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대체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젤형 기업의 비중 변화는 중소기업 규모의 3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의 경우에 두드러졌으며, 그 결과 30명 이상 300명 미만 가젤형 기업의 비중은 절반 정도에서 2015년 8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증하여 가젤형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가운데 3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기업이 4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6.2%에서 14.3%로 증가하였고, 1,000명 이상인 기업의 비중 또한 1.5% 정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가젤형 기업의 업종별 분포

본 절에서는 가젤형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업종을 파악하고, 가젤형 기업 전체 종사자 가운데 주요 업종별 고용 비중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주요 업종의 전반적인 기업규모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 1) 가젤형 기업의 업종별 비율

본 연구에서는 업종별 분포를 크게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전통서비스업, 건설업, 기타 업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서비스업을 광범위하게 정의할 경우 전체 산업에서 1차 산업(농업, 임업, 어업)과 2차 산업(광업, 제조업) 및 최종 생산물이 유형 재화 혹은 무형 재화인 건설업과 전기·가스·수도·증기 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포괄하기도 하지만(통계청, 2008),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업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업종들의 특성이 상이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지식기반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분류방식인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전통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의 사업체 수 비중이 80%를 상회하여 그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조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의 비중이 25.6%로 분석되었고, 서비스업에서는 전통서비스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의 사업체 수 비중은 21.2%로 파악된 반면 지식집약적 성격을 지니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의 경우 그 비중이 37.4%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 가운데서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부록 1 참고).

표 3-6의 종사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의 종사자 수 비중이 85%를 상회하였다. 업종별 사업체 수 비중에 비해 종사자 수 비중의 경우,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전통서비스업의 격차가 더욱 두드러졌다.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의 종사자 수 비중은 46.1%인 반면, 전통서비스업 부문 가젤형 기업의 종사자 수 비중은 14.1%로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제조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의 종사자 수 비중은 사업체 수 비중과 비슷하게 전체 대비 26.1%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5.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전통서비스업 분류

업종	산업대분류(중분류 코드)	업종	산업대분류(중분류 코드)
지식기반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전통서비스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금융 및 보험업(64~66)		도매 및 소매업(45~4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운수업(49~5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숙박 및 음식점업(55~56)
	교육서비스업(85)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5~9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주) 박형민(2009)의 서비스업 분류방식을 참조, 본 연구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산업 제외

위 내용들을 종합하면, 가젤형 기업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높았으며, 서비스업에서는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이 돋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속하는 가젤형 기업에 주목하여 가젤형 기업의 주요 업종별 분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3-6. 업종별 가젤형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단위: 개, %, 명)

업종	2015년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전 산업	3,779	100.0	924,515	100.0
지식기반서비스업	1,412	37.4	425,900	46.1
제조업	967	25.6	241,615	26.1
전통서비스업	803	21.2	130,253	14.1
건설업	590	15.6	126,082	13.6
기타 업종	7	0.2	665	0.1

주) 본 연구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산업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총합을 전 산업의 총합으로 간주함, 종사자 수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제시

## 2) 제조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의 업종 분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 Korea Standard Industry Code)의 산업중분류를 바탕으로 제조업에 속하는 가젤형 기업 중 업종별 가젤형 기업 분포 비중을 분석하여 상위 10개 업종을 추출하였다<sup>9)</sup>. 가젤형 기업이 속해 있는 제조업 상위 10개 업종에는 주력업종이 상당수 선정되었다.

표 3-7. 제조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의 업종 분포

(단위: 개, 명, %)

업종	2015년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대기업 수 (비중)	대기업 종사자 수 (비중)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sup>10)</sup>	92(9.5)	67,570(28.0)	24(26.1)	59,870(88.6)
자동차 <sup>11)</sup>	133(13.8)	30,027(12.4)	29(21.8)	15,272(50.9)
기계	145(15.0)	19,828(8.2)	8(5.5)	4,783(24.1)
금속가공제품	96(9.9)	19,736(8.2)	19(19.8)	11,371(57.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85(8.8)	18,529(7.7)	11(12.9)	10,152(54.8)
운송장비	58(6.0)	16,337(6.8)	10(17.2)	9,521(58.3)
철강 및 비철금속 <sup>12)</sup>	39(4.0)	13,331(5.5)	8(20.5)	9,911(74.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2(5.4)	13,064(5.4)	14(26.9)	8,725(66.8)
전기장비	61(6.3)	11,847(4.9)	13(21.3)	6,636(56.0)
식료품	70(7.2)	8,793(3.6)	4(5.7)	1,471(16.7)
상위 10개 업종	831(85.9)	219,062(90.7)	140(16.8)	137,712(62.9)

주) 종사자 수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제시함, 종사자 수 300명 이상인 사업체를 대기업으로 분류

9)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여 산업중분류까지 분석한 후, 기업 비중이 4%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여 다소 상이한 산업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중분류의 경우에는 산업소분류 단위까지 추가 분석을 통해 제조업 부문 내 주요 업종들을 선정하였음.

10)반도체 제조업(261), 전자부품 제조업(262),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263),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264)

11)트레일러 제조업의 경우 가젤형 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없어 자동차라고 명명함

12)1차 금속 제조업(24)

상위 10개 업종은 2015년 기준 제조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 전체 종사자 수 대비 90.7% 정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체 사업체 수 대비 85.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제조업에 속하는 가젤형 기업의 종사자 수 비중을 살펴보면,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자동차·기계·금속가공제품·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양대 산맥으로서 역할을 하는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와 자동차가 가젤형 기업 전체 종사자수 대비 40.4%의 비중을 차지하여 불균형적인 분포가 돋보였다. 특히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의 중요도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업종들의 종사자 수 비중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사업체수 대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의 평균 기업 규모가 가장 크고 식료품의 업체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표 3-7의 주요 업종별 대기업 종사자 수 비중을 통해 고용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주력 업종으로 대표되는 전자부품, 철강 및 화학은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65%를 상회하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대기업의 고용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 반면에 기계와 식료품의 경우 전체 종사자 수 대비 대기업 종사자 수 비중이 30%보다 낮아 대기업 보다는 고용구조 상 중소기업의 역할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서비스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의 업종 분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 Korea Standard Industry Code)의 산업중분류를 바탕으로 가젤형 기업이 속해 있는 서비스업 주요 업종의 사업체 수 비중을 분석하여 상위 12개 업종을 추출하였다. 상위 12개 업종은 2015년 기준 서비스업에 속해 있는 가젤형 기업 종사자 수 대비 81.6% 정도의 비중을, 사업체 수 대비 74.2%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분석 결과 서비스업 가운데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속하는 가젤형 기업의 비중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사업서비스업<sup>13)</sup>의 비중이 돋보였다. 이는 경제 성장에 있어서 혁신과 차별화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사업서비스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이희연, 2011).

서비스업에 속하는 주요 업종별 가젤형 기업의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사업지원서비스·의료·연구개발·전문서비스·도매 순으로 비중이

표 3-8. 서비스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의 업종 분포

(단위: 개, 명, %)

업종		2015년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대기업 수 (비중)	대기업 종사자 수 (비중)
지식	사업지원	279(12.6)	99,851(18.0)	116(41.6)	76,292(76.4)
지식	의료 <sup>14)</sup>	231(10.4)	86,366(15.5)	46(19.9)	62,593(72.5)
지식	연구개발	61(2.8)	52,670(9.5)	29(47.5)	48,885(92.8)
지식	전문서비스	118(5.3)	37,738(6.8)	32(27.1)	28,250(74.9)
전통	도매 <sup>15)</sup>	240(10.8)	36,850(6.6)	26(10.8)	15,702(42.6)
지식	금융업	62(2.8)	28,881(5.2)	13(21.0)	24,361(84.3)
전통	육상운송 <sup>16)</sup>	146(6.6)	26,075(4.7)	16(11.0)	8,776(33.7)
지식	사업시설관리	74(3.3)	23,013(4.1)	25(33.8)	16,013(69.6)
전통	소매업	93(4.2)	16,681(3.0)	10(10.8)	4,859(29.1)
지식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sup>17)</sup>	95(4.3)	16,518(3.0)	14(14.7)	6,525(39.5)
지식	출판업 <sup>18)</sup>	126(5.7)	16,027(2.9)	9(7.1)	4,253(26.5)
지식	사회복지	118(5.3)	13,109(2.4)	6(5.1)	2,136(16.3)
상위12개 업종		1,643(74.2)	453,779(81.6)	342(20.8)	298,645(65.8)

주) 종사자 수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제시함, 종사자 수 300명 이상인 사업체를 대기업으로 분류, 지식=지식기반서비스업, 전통=전통서비스업

13) 생산자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는 여러 업종 가운데 금융, 보험, 부동산 업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일컬음(이희연, 2011)

14) 보건업(86)

15)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16) 파이프라인 운송에 속한 가젤형 기업이 없어 육상운송이라고 명명함

1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72)

18)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높은 한편 사업지원서비스· 의료· 연구개발· 전문서비스의 상위 4개 업종의 종사자 수 비중은 50%를 상회하여 상위 4개 업종에 밀집된 불균형적인 분포형태를 보였다. 특히 사업지원서비스와 의료 업종에 속한 종사자 수의 비중이 30%를 상회하였다.

전반적인 기업규모의 경우 주요 업종 가운데 연구개발, 금융 업종의 대기업 종사자 수 비중이 92.8%, 84.3%로 전반적인 기업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된 반면에 출판업, 사회복지 업종의 대기업 종사자 수 비중은 각각 26.5%, 16.3%에 불과해 위 업종들의 일자리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소결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가젤형 기업에 대한 정의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젤형 기업을 추출하였다. 이어서 가젤형 기업을 구성하는 업종별 비중을 파악하여 가젤형 기업을 구성하는 주요 업종별 분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젤형 기업의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인 지표를 선택함에 있어서 ‘고용없는 성장’의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용’ 관점에서 가젤형 기업을 추출하였다. 측정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상대적 비율’ 혹은 ‘절대적 양’을 활용할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편향된 결과가 제시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편향된 결과를 배제할 수 있는 Birch Index를 활용하였다.

모집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종사자 수 10인 이상이라는 한계치를 설정하여 자생력(혹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업들은 제외시킨 후 56,821개의 사업체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성장 기업’ 27,367개 사업체만을 모집단으로 삼았으며, ‘성장 기업’ 내에서 가젤형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순위규모법칙에 기초한 Birch Index 분포 곡선의 변

곡점을 토대로 가젤형 기업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결과적으로 3,779개의 가젤형 기업을 추출하였으며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본고에서는 가젤형 기업을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이면서, 고용성장지수(Birch Index)로 측정한 고용증가속도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성장기업 내 상위 10%인 기업’으로 정의를 내렸다.

가젤형 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큰 가운데, 서비스업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주력 업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본 장에서는 세부적으로 제조업, 서비스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의 주요 업종별 분포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제조업 부문 상위 10개 업종은 제조업에 속해 있는 가젤형 기업 종사자 수의 90.7% 정도로 전체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가운데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와 자동차 업종이 전체 대비 40.4%의 비중을 차지하여 위 업종들이 가젤형 기업 내 제조업 부문에서 중요한 존재임이 부각되었다.

서비스업 부문에 속한 가젤형 기업에서는 경제 성장에 있어서 사업서비스업에 대한 역할 증대에 힘입어 사업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돋보였다. 서비스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의 상위 12개 업종은 서비스업에 속해 있는 가젤형 기업 종사자 수 대비 81.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가운데 사업지원서비스·의료·연구개발·전문서비스 업종의 종사자 수 비중이 전체 대비 50%를 상회하여 상위 4개 업종에 밀집된 불균형적인 분포 형태를 보였다. 특히 사업지원서비스와 의료 업종에 속한 종사자 수 비중이 30%를 상회하였다.



## 제 4 장 가젤형 기업의 공간분포

본 장에서는 가젤형 기업의 공간분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먼저 가젤형 기업의 전반적인 공간분포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업종별로 입지적 특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가젤형 기업 가운데 주력 업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업종별 공간분포특성을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로 지역 간 상대적 우위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젤형 기업을 업종별로 구분할 경우 각 업종에 속한 가젤형 기업 수가 적기 때문에 분포패턴을 살펴보기에 적절하지 않고 사업체에 따라 기업규모 또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공간분포를 파악하였다.

### 1. 가젤형 기업의 권역별 공간분포

본 절에서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2015년 기준 가젤형 기업의 전반적인 공간분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접 지역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구획된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행정구역에 기초하여 16개 시·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16개 시·도로 구분하였을 때에 비해, 권역별로 구분한 경우가 보다 공간분포특성을 잘 보여준다.

표 4-1에 따르면, 가젤형 기업의 전체 종사자 수 가운데 수도권에 65.0%가 분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의 비중이 62.6%에 달해 두 지역에 매우 군집된 분포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업종 특성상 대기업이 많이 입지해 있고 고급 인력의 밀집도가 높은 서울에 많이 분포하는 경향이 있고, 제조업 가운데 첨단산업으

로 분류되는 기술집약적 업종들의 경우 특정 부문에 특화된 전문 인력 수급이 가장 큰 입지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급인력 확보가 용이하면서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도에 가젤형 기업의 종사자가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경제권에서는 동남권이 전체 종사자의 1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청권·호남권·대경권의 경우 6~7% 정도의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1.4%와 0.7%로 그 비중이 극히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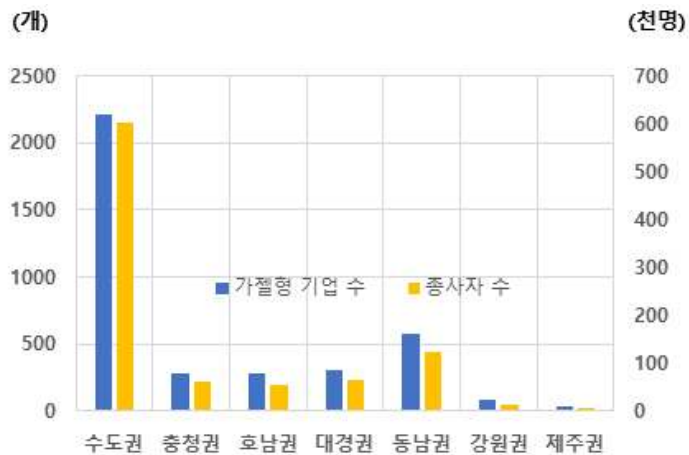


그림 4-1. 광역경제권별 가젤형 기업 분포

표 4-1. 가젤형 기업의 권역별 분포

(단위: 개, %, 명)

광역권	지역	사업체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수도권	서울	1,236	2,209	32.7	58.5	371,054	600,662	40.1	65.0
	경기	850		22.5		208,199		22.5	
	인천	123		3.3		21,409		2.3	
충청권	285			7.5		60,611		6.6	
호남권	284			7.5		56,069		6.1	
대경권	303			8.0		65,290		7.1	
동남권	575			15.2		121,976		13.2	
강원권	85			2.2		13,141		1.4	
제주권	38			1.0		6,766		0.7	

주) 광역권은 광역경제권을 의미

## 2. 제조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의 공간분포

### 1) 제조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 권역별 분포

본 절에서는 제조업 부문에 한정하여 가젤형 기업의 공간 분포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제조업 내 주요 업종별 가젤형 기업의 공간 패턴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제조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의 전반적인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공간패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에 비해 제조업 부문에 한정할 경우 가젤형 기업의 수도권 군집 정도가 65.0%에서 45.0%로 현저하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제조업의 특성상 서울의 지향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표 4-2. 제조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의 권역별 분포

(단위: 개, %, 명)

광역권	지역	사업체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수도권	서울	37	443	3.8	45.8	4,905	108,646	2.0	45.0
	경기	367		38.0		95,867		39.7	
	인천	39		4.0		7,874		3.3	
충청권	대전	15	118	1.6	12.2	4,884	26,131	2.0	10.8
	충북	45		4.7		7,527		3.1	
	충남	58		6.0		13,720		5.7	
호남권	광주	16	66	1.7	6.8	2,437	23,956	1.0	9.9
	전북	26		2.7		6,111		2.5	
	전남	24		1.0		15,408		6.4	
대경권	대구	38	124	3.9	12.8	5,220	35,943	2.2	14.9
	경북	86		8.9		30,723		12.7	
동남권	부산	44	200	4.6	20.7	8,372	44,641	3.5	18.5
	울산	53		5.5		15,923		6.6	
	경남	103		10.7		20,346		8.4	
강원권		15		1.6		2,216		0.9	
제주권		1		0.1		82		0.0	

주) 광역권은 광역경제권을 의미

제조업에 속하는 가젤형 기업의 종사자 수 비중을 살펴보면, 수도권 내에서 경기도에 분포한 종사자를 제외하면 서울과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와 3.3%에 불과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첨단 업종으로 분류되는 여러 사업체들이 전문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다소 지가가 저렴하면서도 서울 근교인 경기도 인근에 입지해 경기도에 종사자가 불균형적으로 분포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제조업에 특화되어있는 동남권과 대경권의 가젤형 기업 종사자 수 비중이 18.5%, 14.9%로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경부축을 따라 제조업이 집중적으로 발달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충청권과 호남권은 약 10%로 비슷한 비중의 종사자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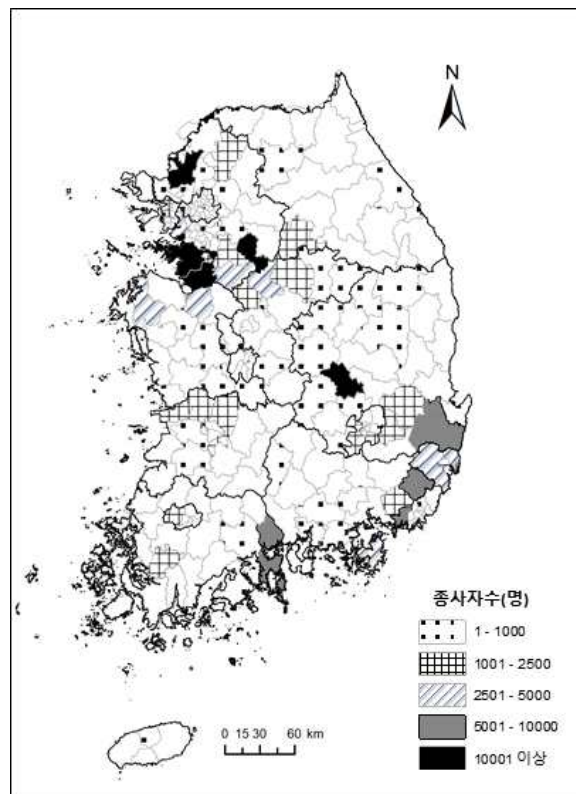


그림 4-2. 제조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 종사자 분포

## 2) 제조업 주요 업종별 가젤형 기업 공간 분포

본고에서는 제조업 부문 주요 업종별로 가젤형 기업의 공간분포를 파악함에 있어서, 가젤형 기업이 많이 분포한 제조업 부문 상위 10개 업종 가운데 종사자 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종사자 수 비중이 높은 상위 4개 업종인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자동차·기계·금속가공제품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업종에 상관없이 제조업에 속하는 가젤형 기업은 대체로 상위 10% 지역에 가젤형 기업 종사자의 대부분이 분포하는 매우 불균형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조업 주요 업종 가운데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업종이 가젤형 기업 종사자가 공간적으로 가장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업종은 가젤형 기업 종사자들이 경기도 내 지역에 군집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 파주시(26.6%), 이천시(20.3%), 평택시(18.0%)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파주·이천·평택 일대에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입지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그 연계 산업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서산시(10.0%), 안산시(6.9%), 평택시(6.8%)의 분포 비중이 높았는데, 위 지역들은 대체로 자동차 공장 인근에 위치한 지역이면서 대규모 자동차부품 생산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분석되었다. 현대 자동차 공장이 위치한 아산 인근 지역인 서산에는 현대·기아차가 조성한 자동차 부품 생산단지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안산에 또한 자동차 부품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평택의 경우에도 평택항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공장이 집적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입지적 특성들이 자동차 업종 가젤형 기업 종사자 분포 비중이 높은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계 업종의 경우 창원시(11.1%), 천안시(10.9%), 화성시(10.5%)에 가젤형 기업 종사자들이 군집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 지역들은 국가산업단지 혹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다. 창원시의 경우 동남해안에 중화학공업을 특화시키려는 목적 하에 창원기계공업단지라는 이름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었으며, 천안시와 화성시의 경우에는 기계 업종과 관련된 여러 사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밀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속가공제품의 경우 구미시(13.8%), 경주시(9.2%), 음성군(7.3%)이 차지하는 종사자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미시는 조성된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및 전자부품과 관련된 금속가공 사업체들이 많이 입지해 있으며, 경주시와 음성군에는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단지 내에 여러 금속가공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제조업 주요 업종별 가젤형 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순위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자동차	기계	금속가공제품
1	파주시(26.6)	서산시(10.0)	창원시(11.1)	구미시(13.8)
2	이천시(20.3)	안산시(6.9)	천안시(10.9)	경주시(9.2)
3	평택시(18.0)	평택시(6.8)	화성시(10.5)	음성군(7.3)
4	구미시(16.2)	양산시(6.5)	안산시(4.8)	안산시(7.2)
5	안산시(4.8)	화성시(6.3)	대구달서구(4.4)	창원시(6.2)
<b>상위 5위</b>	<b>85.9</b>	<b>36.4</b>	<b>41.7</b>	<b>43.7</b>
6	성남시(1.8)	울산북구(6.3)	안성시(4.4)	거제시(5.2)
7	오산시(1.7)	아산시(5.8)	군산시(4.2)	울주군(5.0)
8	금천구(1.3)	달서구(5.2)	부산강서구(4.1)	아산시(3.8)
9	인천남동구(1.3)	경주시(4.5)	용인시(3.7)	화성시(3.6)
10	시흥시(1.2)	영천시(4.1)	평택시(3.6)	부평구(3.5)
<b>상위 10위</b>	<b>93.1</b>	<b>62.4</b>	<b>61.6</b>	<b>64.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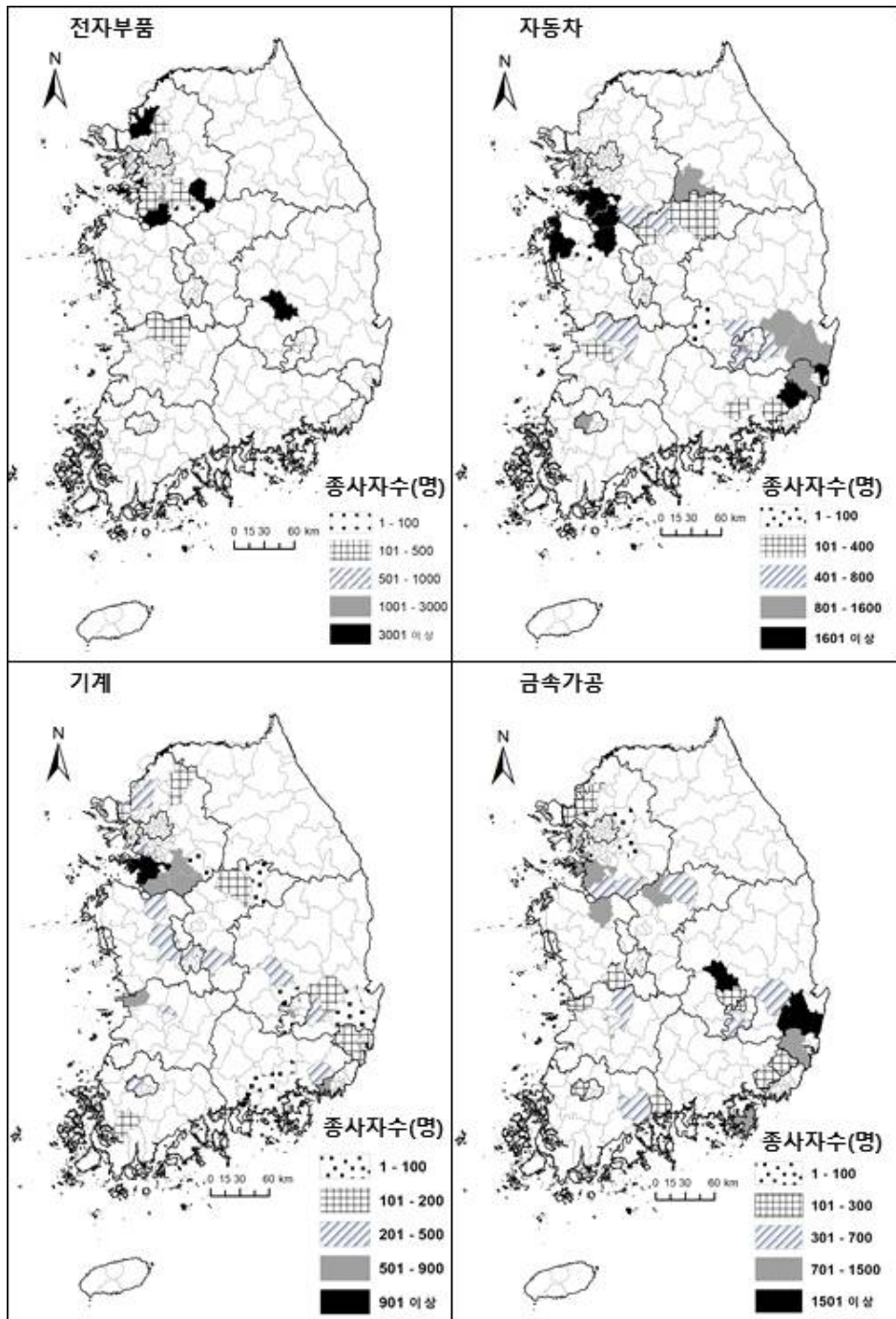


그림 4-3. 제조업 주요 업종별 가젤형 기업 종사자 분포

### 3.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의 공간분포

#### 1) 지식기반서비스에 속한 가젤형 기업 권역별 분포

본 절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한정해 공간 분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입지적 특성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앞의 2절에서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내용과 매우 대조적인 공간 패턴을 보였다.

분석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앞서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제조업에 비해 수도권에 밀집하는 정도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지식기반산업이라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수도권 지향성이 돋보였다. 또한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속한 가젤형

표 4-4.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 권역별 분포

(단위: 명, %, 개)

광역권	지역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수도권	서울	699	933	49.5	66.1	233,117	319,634	54.7	75.0
	경기	205		14.5		80,892		19.0	
	인천	29		2.1		5,625		1.3	
충청권	대전	59	92	4.2	6.5	17,830	25,087	4.2	5.9
	충북	9		0.6		1,205		0.3	
	충남	24		1.7		6,052		1.4	
호남권	광주	34	94	2.4	6.7	6,886	15,647	1.6	3.7
	전북	24		1.7		2,597		0.6	
	전남	36		2.5		6,164		1.4	
대경권	대구	57	87	4.0	6.2	12,477	16,861	2.9	4.0
	경북	30		2.1		4,384		1.0	
동남권	부산	89	157	6.3	11.1	26,110	39,479	6.1	9.3
	울산	21		1.5		4,091		1.0	
	경남	47		3.3		9,278		2.2	
강원권		33		2.3		5,209		1.2	
제주권		16		1.1		3,983		0.9	

주) 광역권은 광역경제권을 의미



기업 종사자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5.0%로 매우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에 50%를 상회하는 종사자가 분포하여 서울에 군집된 불균형적인 공간분포형태를 보였다. 이는 가젤형 기업이 속해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업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서비스업은 대기업을 수요로 하는 업종,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기업 및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에 군집된 분포형태를 보인다고 풀이할 수 있다. 그 외 비수도권에서는 동남권 9.3%, 충청권 5.9%, 대경권 4.0%, 호남권 3.7%, 강원권 1.2%, 제주권 0.9% 순으로 종사자 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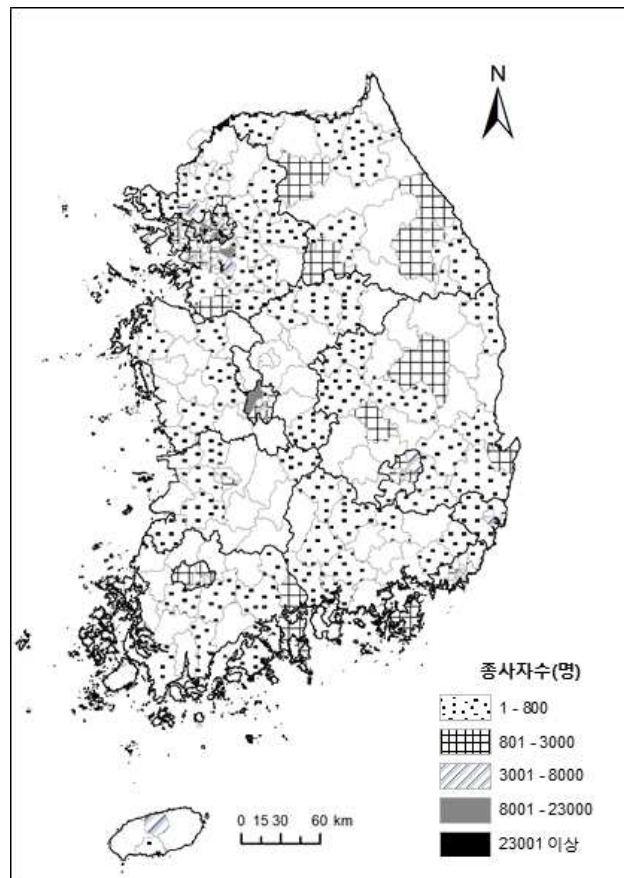


그림 4-4.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 종사자 분포

## 2) 지식기반서비스업 주요 업종별 가젤형 기업 공간 분포

본고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주요 업종별로 가젤형 기업의 공간분포를 파악함에 있어서, 가젤형 기업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업 부문 상위 10개 업종 가운데 종사자 수 비중이 높은 상위 4개 업종인 사업지원서비스· 의료· 연구개발· 전문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은 업종 간 종사자들이 군집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연구개발과 전문서비스 업종은 공간적으로 밀집된 패턴을 보인 반면에, 사업지원서비스와 의료 업종은 다소 공간적으로 분산된 분포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업지원서비스의 경우 영등포구(14.4%), 마포구(7.3%), 강남구(5.6%), 구로구(5.3%)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 지역들은 서울 내 사업체들이 집적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지원서비스 업체들이 기업들과의 기능적 연계를 꾀하기 위해 위 지역들에 가젤형 기업의 종사자들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 업종의 경우 강남구(10.4%), 종로구(8.8%), 성남시(7.5%), 부산 서구(7.0%)가 가젤형 기업 종사자 수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위 지역들의 공통점은 규모가 큰 종합 병원이 입지해 있다는 것이다. 강남구, 종로구, 성남시, 부산 서구에는 대학 소재의 병원이 위치해 있으며, 규모가 큰 대형 병원 또한 분포해 있기에 이들을 중심으로 의료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어 가젤형 기업의 종사자 수 분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개발 업종의 경우 수원시(50.2%), 대전 유성구(17.5%)에 가젤형 기업 종사자 수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원시에는 삼성전자 연구단지를 비롯하여 대규모 연구단지가 조성되어 관련 연구 사업체들이 군집되어 있으며, 대전 유성구에는 국내의 과학기술거점으로서 역

활을 하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가젤형 기업의 종사자 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서비스 업종의 경우 강남구(25.4%), 종로구(18.7%), 서초구(17.9%)에 주로 분포하는 가운데, 서울에 가젤형 기업 종사자의 대부분이 군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서울의 도심부에 기업 본사의 상당수가 입지해 있기 때문에 전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점,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특성 등이 작용하여 가젤형 기업 종사자의 대부분이 밀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 지식기반서비스업 주요 업종별 가젤형 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순위	사업지원서비스	의료	연구개발	전문서비스
1	영등포구(14.4)	강남구(10.4)	수원시(50.2)	강남구(25.4)
2	마포구(7.3)	종로구(8.8)	대전유성구(17.5)	종로구(18.7)
3	강남구(5.6)	성남시(7.5)	서초구(8.1)	서초구(17.9)
4	구로구(5.3)	부산서구(7.0)	용인시(7.9)	서울중구(10.5)
5	부천시(4.1)	고양시(5.2)	금천구(3.8)	영등포구(9.9)
<b>상위 5위</b>	<b>36.7</b>	<b>38.8</b>	<b>87.5</b>	<b>82.4</b>
6	서초구(3.8)	동대문구(5.0)	안산시(2.2)	동작구(4.8)
7	서울중구(3.4)	천안시(4.0)	의왕시(1.8)	마포구(2.2)
8	대구동구(2.8)	창원시(3.0)	성남시(1.0)	과천시(2.0)
9	수원시(2.6)	대구중구(3.0)	창원시(0.9)	용산구(1.8)
10	울산남구(2.4)	안산시(2.9)	천안시(0.9)	금천구(1.4)
<b>상위 10위</b>	<b>51.7</b>	<b>56.6</b>	<b>94.3</b>	<b>94.6</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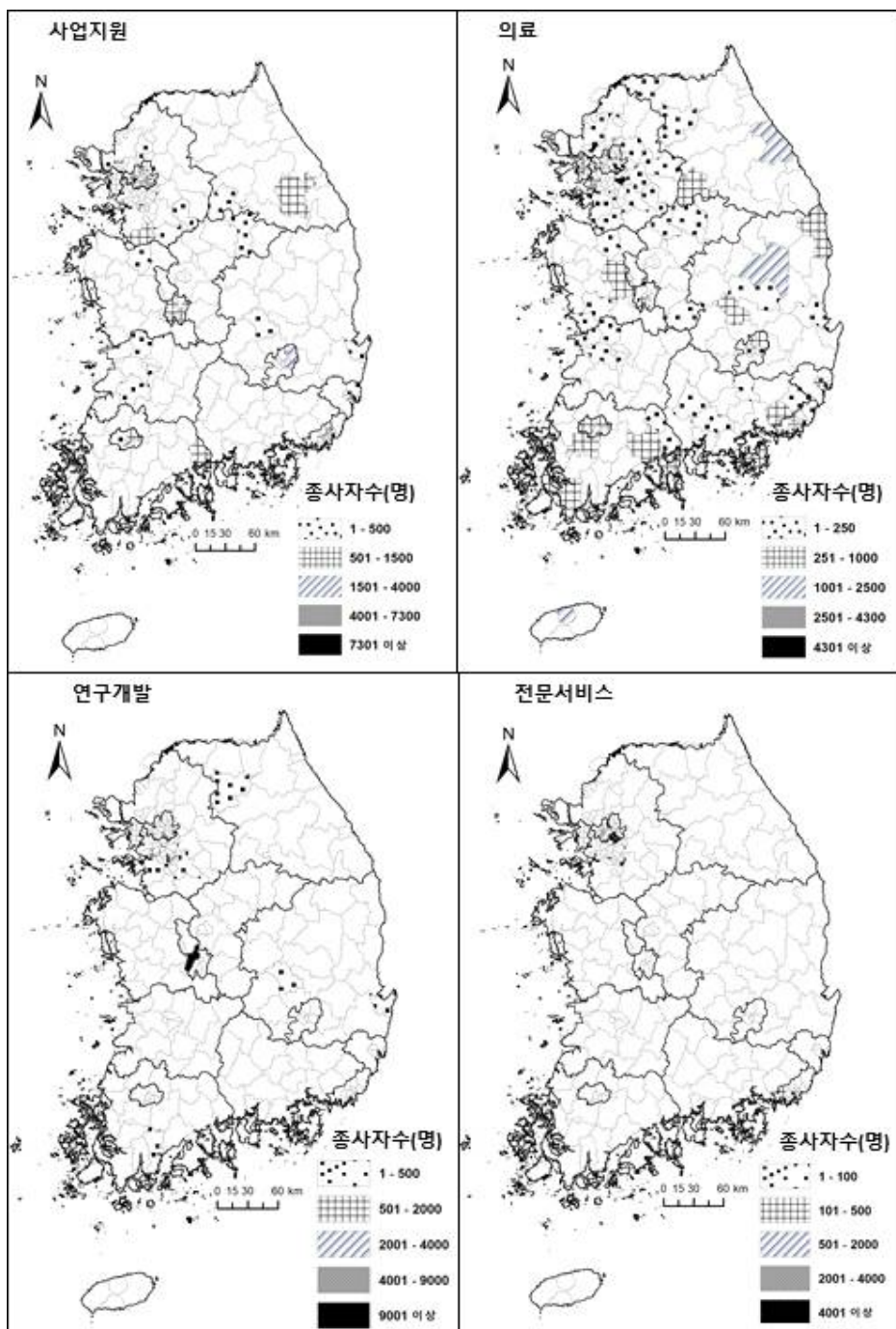


그림 4-5. 지식기반서비스업 주요 업종별 가젤형 기업 종사자 분포

## 4. 소결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부문 가젤형 기업의 종사자의 분포를 광역 경제권 차원에서 살펴본 후, 각 산업 내 종사자 수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에 주목하여 업종별로 입지 특성에 따라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지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제조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 종사자 수 대비 수도권의 비중은 45.0%, 그 가운데 경기도의 비중은 39.7%를 차지해 수도권 내에서 경기도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가젤형 기업 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첨단업종의 경우 전문인력 수급이 용이한 지역이 최우선적인 입지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경기도는 서울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적합하고 지가 또한 저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수도권의 가젤형 기업 종사자 수 비중이 75.0%로 매우 높았고, 그 가운데 서울의 비중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젤형 기업이 속해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업 가운데 사업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높는데, 사업서비스 업종의 특성상 대기업 및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각 업종 부문 내 가젤형 기업 종사자 수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에 주목하여 업종별로 상대적 우위에 있는 지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는 대기업이 입지해 있고, 그 연계 산업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된 파주시(26.6%), 이천시(20.3%), 평택시(18.0%)에 가젤형 기업 종사자가 군집하고 있었으며, 자동차 업종의 경우 자동차 공장이 입지한 인근 지역 혹은 자동차 부품단지가 조성된 지역인 서산시(10.0%), 안산시(6.9%) 등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었다. 기계 업종은 국가산업단지 혹은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종사자가 군집해 있었으며, 그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창원시(11.1%), 천안시(10.9%)가 있었다. 금속가공업종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및 전자부품과 관련된 금속가공업

체가 입지해 있는 구미시(13.8%)를 비롯하여 일반산업단지 내 금속가공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경주시(9.2%), 음성군(7.3%)이 가젤형 기업 종사자 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식기반서비스업 주요 업종 간에는 가젤형 기업 종사자의 군집 정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연구개발과 전문서비스 업종은 종사자가 공간적으로 밀집된 형태를 보이는 반면에, 사업지원서비스와 의료 업종은 공간상 분산된 분포패턴을 보였다.

사업지원서비스는 서울 내 사업체들이 집적해 있는 지역에서 기능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사업지원서비스 업종 많은 사업체들이 입지해 있는 영등포구(14.4%), 마포구(7.3%) 등이 가젤형 기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의료는 대체로 대형병원 혹은 대학병원이 입지해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강남구(10.4%), 종로구(8.8%) 순으로 가젤형 기업 종사자가 군집되어 있었다. 연구개발은 연구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연구기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수원시(50.2%), 대전 유성구(17.5%)등에 종사자가 밀집해 있었으며, 전문서비스 업종은 전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부인 강남구(25.4%), 종로구(18.7%)의 종사자 수 비중이 높았다.

이와 같이, 각 업종들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지역들이 있으며, 업종에 따라 입지적 특성이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젤형 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별 입지적 특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 제 5 장 지역별 가젤형 기업 고용창출역량 분석

본 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단순히 그쳐서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미흡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존재로서 가젤형 기업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면 일자리의 양적 차원과 질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용창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지역 관점에서 가젤형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용창출 역량을 토대로 유형을 분류하여 각 유형에 속한 지역들이 일자리 창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유형별로 업종 특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 1. 지역 간 고용창출역량 비교

#### 1) 고용창출역량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고용창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고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파악하는 단계가 선행되고 이를 토대로 한 고용창출에 대한 방향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고용창출의 양적·질적 특성을 변화에 주목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용창출의 양적 특성의 경우, 분석 기간 동안 늘어난 일자리를 통해 얼마나 고용기회가 증가했는지를 측정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증가량을 측정할 경우, 각 지역의 절대적인 고용규모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고용창출률’을 활용해 늘어난 고용기회를 분석하였다.

한편 고용창출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석기간 동안 늘어난 일자리

창출량을 분석 초기시점의 종사자 수로 나누어 증가율을 측정하지 않고 분석 초기시점의 종사자수와 분석 최종시점의 종사자 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이 방법은 분석 최종시점에 창업하거나 폐업한 기업의 일자리 변동량을 분석 초기시점의 종사자 수로 나눌 경우 일자리 변동률이 무한대의 값을 가진다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창업기업 혹은 기존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윤윤구 외, 2009).

고용창출의 질적 특성의 경우 연구자와 연구목적에 따라 측정대상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일자리 질’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국제노동기구(ILO)의 ‘Decent Work’, EU의 ‘Quality in Work’, UNECE의 ‘Quality of Employment’ 등을 참고하여 노동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하였다(김영민, 2014). 본고에서는 창출된 일자리의 질적 특성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노동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5-1. 고용창출역량 측정방법

구분	지표명	측정항목	측정방법
양적 측면	고용 기회	고용창출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frac{2010 \sim 2015\text{년 종사자수 증가량}}{(2010\text{년 종사자수} + 2015\text{년 종사자수}) \div 2} \times 100</math></li> <li>• 본고에서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를 제외하고 종사자 수를 계산하였음</li> </ul>
질적 측면	노동 생산성	1인당 부가가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1인당 부가가치 - 2010년 1인당 부가가치</li> <li>• 부가가치<sup>19)</sup> = 영업이익 + 노동소득 + 감가상각비 + 임차료 + 세금과공과</li> <li>• 1인당 부가가치 = 부가가치 / 종사자 수<sup>20)</sup></li> </ul>

주) 2010년, 2015년 「경제총조사」 DB를 기초로 측정하였음

19) 부가가치를 산정 방식은 차상미(2015)를 참조, 노동소득은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를 합한 금액을 일컬음

20) 차상미(2015)를 참조



노동 생산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 지표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차상미(2015)를 참고하여 분석 초기년도 대비 최종년도의 1인당 부가가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계산하고자 하였다. 한편 1인당 부가가치 변화율을 토대로 지역별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면 2010년 마이너스 수치에서 2015년 플러스 수치로 전환되거나 반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경우에는 변화율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차상미, 2015), 분석기간 동안의 1인당 부가가치 변화, 즉 2010년 1인당 부가가치 대비 2015년 1인당 부가가치의 변화를 토대로 각 지역의 노동생산성을 측정하였다.

## 2) 지역 간 고용창출의 양적 측면 비교

본고에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분석기간 동안 가젤형 기업에 의한 고용의 양적 변화를 지역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년 간 가젤형 기업에 의해 총 433,314명의 고용이 창출되었으며, 그 가운데 고용창출 비중을 기준으로 상위 10위에 속한 지역이 전체 일자리 창출 대비 39.2%의 비중을 차지하여 고용창출이 매우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파악하였다. 종사자 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내에서의 증가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체로 지역노동시장 규모가 큰 수도권 내에서 고용창출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노동시장 규모가 클수록 일자리 창출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지역별 절대적인 고용규모가 통제 가능한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률을 통해 각 지역의 고용기회를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군부의 고용창출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광역시보다는 비 광역시 내에 위치한 시·군·구의 고용창출률이 대체로 높았다. 한편 수도권에 위치한 고용규모가 큰 지역들 혹은 대도시의 경우 절대적인 규모 때문에 고용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5-2. 지역 간 고용창출 및 고용창출률 비교

(단위: 명, %)

순위	지역	고용창출(비중)	지역	고용창출률
1	강남구	31,834(7.4)	강화군	141.7
2	영등포구	24,015(5.5)	영암군	139.6
3	서초구	21,908(5.1)	예천군	136.8
4	수원시	21,510(5.0)	고흥군	135.6
5	중구	17,539(4.1)	부산영도구	135.6
6	종로구	11,555(2.7)	밀양시	133.3
7	파주시	11,077(2.6)	가평군	130.9
8	송파구	11,007(2.5)	영월군	125.3
9	금천구	10,204(2.4)	성주군	124.5
10	성남시	9,162(2.1)	함안군	122.5
상위 10위 소계		169,811(39.2)	상위 10위 평균	135.5
전체		433,314(100.0)	전체 평균	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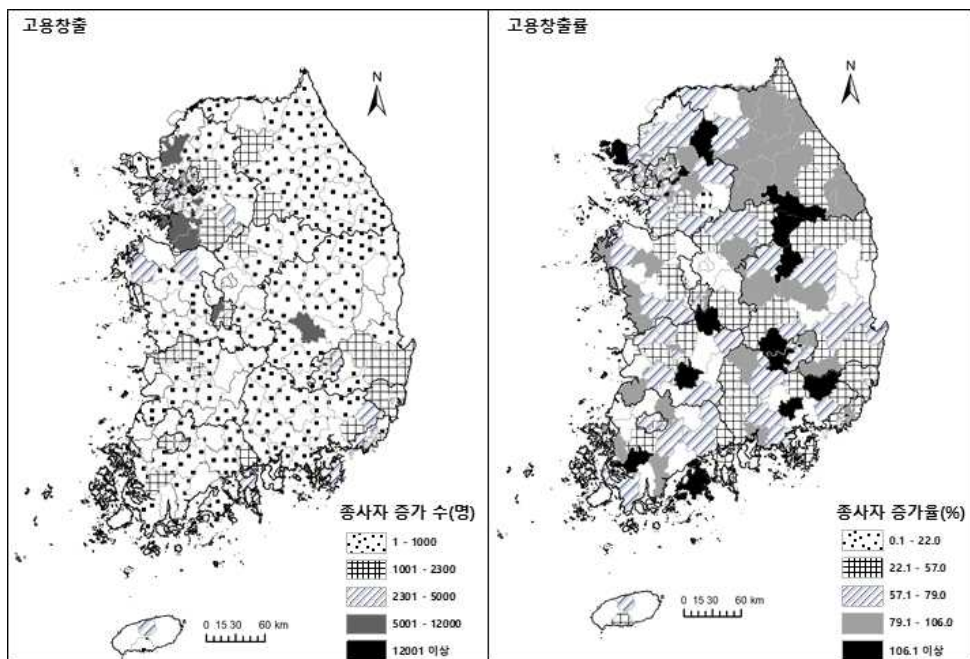


그림 5-1. 지역별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 및 고용창출률

### 3) 지역 간 고용창출의 질적 측면 비교

본 연구에서는 고용창출이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향상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 차원에서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의 질적 측면을 노동 생산성에 주목하여 살펴보았으며 1인당 부가가치의 변화를 지표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간 1인당 부가가치 변화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지역의 부가가치가 지역별 GRDP를 대체하는 수치로 활용됨을 고려할 때, 이는 지역별로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매우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5-3. 지역 간 1인당 부가가치 변화 비교

(단위: 백만원)

순위		지역	2010년 1인당 부가가치	2015년 1인당 부가가치	1인당 부가가치의 변화
상 위 10 위	1	평택시	-2.4	327.7	330.1
	2	공주시	55.1	370.8	315.7
	3	영암군	-71.1	95.4	166.5
	4	논산시	44.8	172.0	127.1
	5	파주시	247.0	368.7	121.7
	6	옥천군	-72.0	49.0	121.0
	7	고흥군	32.5	135.5	103.0
	8	오산시	160.8	261.8	101.0
	9	대전동구	66.9	167.3	100.4
	10	강서구	90.7	186.2	95.4
하 위 10 위	190	강남구	339.7	101.0	-238.7
	191	남원시	258.5	18.9	-239.5
	192	하남시	305.7	41.3	-264.5
	193	용산구	372.4	77.4	-295.0
	194	남양주시	374.5	45.2	-329.3
	195	중랑구	450.8	84.0	-366.7
	196	강동구	543.6	99.6	-444.0
	197	도봉구	523.8	38.2	-485.6
	198	여수시	1130.2	524.9	-605.4
	199	무안군	954.4	85.0	-869.3

분석기간 동안 분석 초기년도 대비 1인당 부가가치가 증가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들이 있는 반면에, 고용창출과는 별개로 오히려 1인당 부가가치가 감소해 실제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을 경우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고용창출이 곧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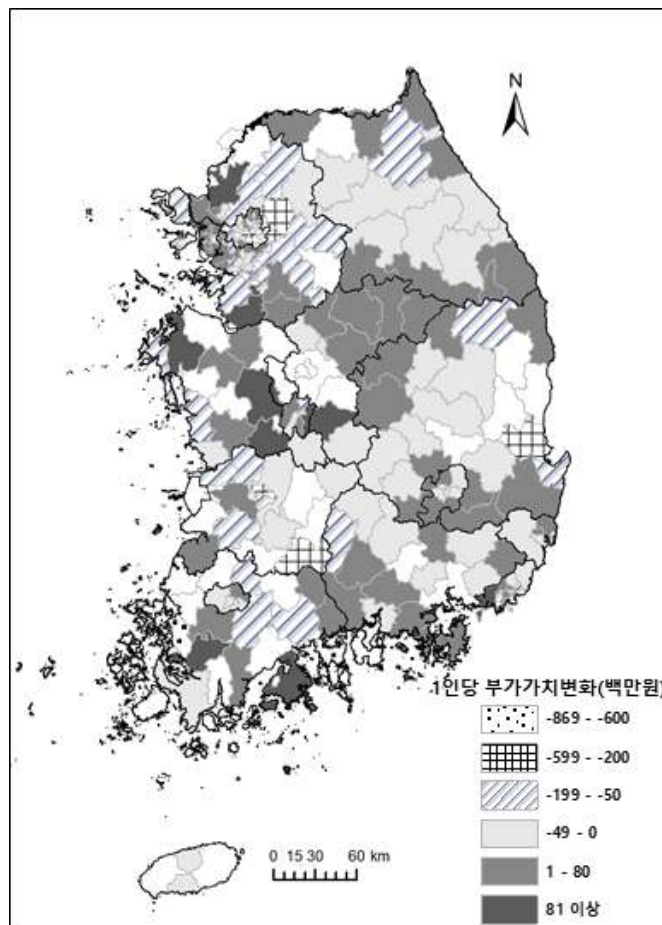


그림 5-2. 지역별 가젤형 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변화(2010년-2015년)

1인당 부가가치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경부축과 호남축을 따라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평택시·공주시·영암군·논산시·파주시 순으로 높게 파악되었다. 대체로 제조업 부문에 특화된 지역들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제조업에 특화된 경우에도 세부 업종이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한편 서울시의 도봉구·강동구·중랑구·용산구·강남구·서초구 등은 1인당 부가가치가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위 지역들에 입지해 있는 가젤형 기업 가운데 도·소매업체들의 부가가치가 극감하여 다른 업종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시켰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도·소매 업종이 지역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로서 기능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단순 고용창출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산업구조상 고부가가치 업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2. 고용창출역량 유형별 특성

본 절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가젤형 기업에 의한 고용변화를 양적·질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유형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각 지역들이 가젤형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고용창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용창출역량 유형별로 업종 특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 1) 고용창출역량의 유형 분류

본 연구에서는 고용창출의 양적 측면인 고용기회를 측정한 고용창출률, 일자리 창출의 질적 측면인 노동생산성을 수치화한 1인당 부가가치

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고용창출역량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측정값의 단위가 다른 고용기회와 노동생산성을 선형표준화<sup>21)</sup>(Linear Scaling Methodology)방법을 활용해 각 지수를 표준화시킨 후, 고용의 양을 X축 고용의 질을 Y축으로 설정한 다음 각 지수의 중위 값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해 가젤형 기업이 입지해 있는 전국 시·군·구를 각 유형에 분류하였다.

고용창출률과 노동생산성 향상 폭이 모두 상대적으로 높아 고용창출역량이 양호한 1사분면은 유형 1, 고용의 양적 측면은 다소 열악하지만 1인당 부가가치의 증가폭은 큰 2사분면은 유형 2, 일자리 변화율과 노동생산성 변화가 모두 열악한 3사분면은 유형 3, 고용의 양적 기준은 양호한 반면 1인당 부가가치의 변화는 다소 저조한 4사분면은 유형 4로 구분하였다. 이를 도식화 한 것은 그림 5-3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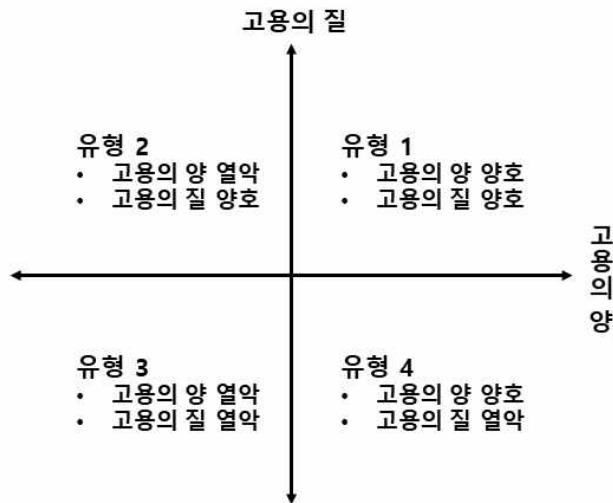


그림 5-3. 고용창출역량 유형화

21) 선형표준화(Linear Scaling Methodology)의 식은 다음과 같다.

$$z_{ij} = \frac{x_{ij} - \text{Min}(x_j)}{\text{Max}(x_j) - \text{Min}(x_j)} \quad (\text{단, } z_{ij} : \text{표준화한 값, } j : \text{세부 항목, } x_{ij} : i\text{지역의 } j\text{항목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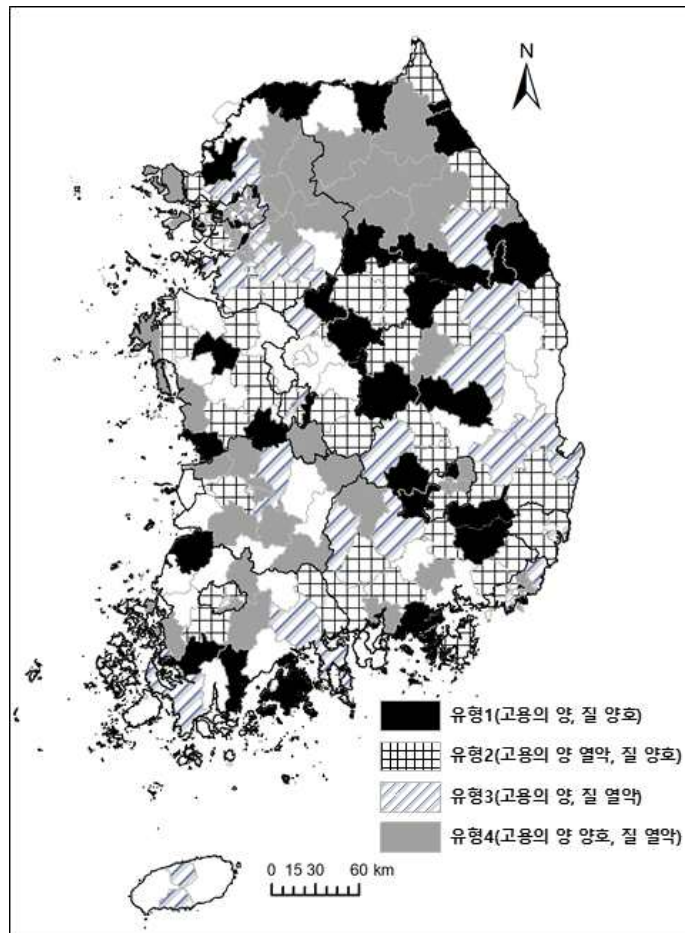


그림 5-4. 고용창출역량 유형별 공간 분포

고용의 양, 질이 양호한 유형 1에 속한 지역들은 전역에 걸쳐 다소 균형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가젤형 기업이 입지해 있는 모든 지역에서 고용의 양과 질이 양호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고용의 질이 우세한 유형 2로 분류된 지역들은 대체로 경부축을 따라 많이 분포하는 가운데, 경상도 내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특화된 지역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열악한 유형 3

에 속한 지역들은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및 대도시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해 있는 가젤형 기업 내 전통 서비스업 업종들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생산성 또한 다른 업종에 비해 저조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의 양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유형 4로 분류된 지역들은 경기도·전라도·강원도의 분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4. 고용창출역량 유형별 지역 분류

유형	지역
고용의 양, 질 양호 (유형 1)	노원구, 은평구, 금천구, 관악구, 부산동구, 동래구, 부산남구, 대구북구, 인천동구, 인천남구, 연수구, 계양구, 대전동구, 부천시, 의왕시, 파주시, 원주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영월군, 철원군, 양구군, 양양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논산시, 서천군, 예산군, 고창군, 고흥군, 장흥군, 영암군,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통영시, 밀양시, 고성군 (43개)
고용의 양 열악, 질 양호 (유형 2)	종로구, 강북구, 동작구, 부산중구, 부산서구, 진구, 부산북구, 부산강서구, 수영구, 달성군, 남동구, 인천서구, 광주북구, 광산구, 대전중구, 유성구, 울산중구, 울산북구, 울주군,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안성시, 김포시, 강릉시, 고성군,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김제시, 나주시, 광양시, 구례군, 경주시, 구미시, 영주시, 문경시, 경산시, 칠곡군, 울진군,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창원시, 창녕군, 하동군, 산청군 (57개)
고용의 양, 질 열악 (유형 3)	서울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울강서구, 영등포구, 강남구, 강동구, 사하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중구, 부평구, 광주서구, 대전서구, 대덕구, 울산남구, 울산동구, 성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용인시, 이천시, 화성시, 양주시, 정선군, 진천군, 완주군,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해남군,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영천시, 봉화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시, 서귀포시 (42개)
고용의 양 양호, 질 열악 (유형 4)	성동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부산영도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대구동구, 대구서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중구, 강화군, 광주동구, 광주남구,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군포시, 하남시, 광주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춘천시, 동해시, 홍천군, 횡성군, 인제군, 보령시, 금산군, 태안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무주군, 임실군, 담양군, 화순군, 무안군, 예천군, 사천시, 함안군, 거창군 (56개)



## 2) 고용창출역량 유형별 업종 특성 비교

전국 시·군·구에 입지한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역량을 기초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더 나아가 유형 간 어떤 업종 특성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 (1) 유형별 업종의 양적, 질적 특성 비교

#### ① 고용의 양과 질이 양호한 유형 1의 업종 특성

본고에서는 고용창출역량 유형별 업종의 양적, 질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과정에 있어서, 고용창출 비중이 매우 미미한 업종의 경우 그 영향력이 작다는 것을 고려하여 유형별 전체 종사자 수 대비 업종의 종사자 수 비중이 1% 이상인 업종에 국한하여 상위 업종을 서열화하였다.

고용창출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 양호한 유형 1을 살펴보면, 유형 1에 속한 지역의 고용창출률은 80%를 상회하여 매우 높고 노동생산성 또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적 측면은 전반적으로 출판업, 전문서비스업, 사회복지 등의 지식기반서비스업 부문 업종들의 고용창출률이 돋보이는 한편 육상운송 등 운수업의 일자리 창출률도 높았다. 지식기반서비스업 부문 업종들은 고용창출의 절대적인 규모 또한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판업의 경우 가산디지털단지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종의 고용창출이 크게 상승한 금천구의 영향을 받아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전문서비스업의 경우 여러 사업체들이 집적되어 있어 많은 전문서비스 수요가 필요한 금천구와 부산항 근처에 위치해 사업체들의 광고 대행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부산 남구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

다. 연구개발의 경우 현대차 부품연구개발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성장이 이루어진 의왕시와 IT 융복합 첨단농업단지가 조성된 성주군 등에 의해 고용창출률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질적 측면의 경우 대체로 제조업종이 고용창출의 질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자부품, 기계, 금속가공 순으로 1인당 부가가치 변화의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부품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는 가산디지털단지를 중심으로 전자부품 업종이 발달한 금천구, LG 디스플레이를 축으로 그 연계 사업체들이 입지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는 파주시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기계 업종의 경우 시화기계단지를 중심으로 여러 사업체들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의왕시, 대불국가산업단지 등 을이 입지해 있는 영암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5-5. 고용의 양, 질이 양호한 유형의 업종 특성

(단위: %, 백만원)

순위	업종	고용창출률	업종	1인당 부가가치 변화
1	출판업	115.7	전자부품	150.4
2	기타운송장비	109.8	기계	110.6
3	전문서비스	109.3	금속가공	92.9
4	창고 및 운송서비스	106.6	기타운송장비	83.3
5	육상운송	106.2	고무 및 플라스틱	53.6
6	사회복지	104.7	식품업	40.8
7	연구개발	95.3	육상운송	31.2
8	금속가공	93.0	창고 및 운송서비스	30.1
9	사업지원서비스	79.2	건축기술	9.8
10	자동차	76.0	사업시설관리	9.2
	유형 1 전체	86.1	유형 1 전체	38.1

## ② 고용의 양은 열악, 질은 양호한 유형 2의 업종 특성

고용창출의 양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지만 질은 양호한 유형 2를 살펴보면, 유형 1에 비해 유형 전체의 고용창출률이 51.2%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유형 2의 1인당 부가가치 변화는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 2 전체의 고용창출률이 낮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전통서비스업의 고용창출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사회복지, 창고 및 운송서비스, 육상운송 등의 고용창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 2에서 사회복지의 고용창출률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사회복지 업종의 경우 다른 유형에서 또한 일자리 창출률이 높게 파악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창고 및 운송서비스 업종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이는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이 입지해 있는 부산 중구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표 5-6. 고용의 양은 열악, 질은 양호한 유형의 업종 특성

(단위: %, 백만원)

순위	업종	고용창출률	업종	1인당 부가가치 변화
1	사회복지	94.2	전자부품	192.2
2	창고 및 운송서비스	78.4	화학물질	148.1
3	육상운송	70.0	기타운송장비	107.9
4	소매업	69.9	자동차	97.5
5	사업시설관리	64.9	전기장비	87.1
6	부동산업	64.1	고무 및 플라스틱	54.2
7	전기장비	63.3	창고 및 운송서비스	49.4
8	건축기술	62.2	식품업	48.3
9	도매 및 상품중개	59.5	1차 금속	42.3
10	사업지원서비스	54.7	기계	26.8
	유형 2 전체	51.2	유형 2 전체	38.6

유형 2의 일자리 질을 살펴보면, 유형 1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제조업종의 생산성 향상이 돋보였다. 유형 1과 유형 2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제조업이 대체로 지역경제에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업종으로서 역할하고 있다고 해석가능하다. 유형 2에서는 특히 전자부품, 화학물질 등 업종의 고용의 질 향상이 돋보였다. 전자부품의 경우 삼성전자가 평택시에 입지하면서 그 인근 지역에도 파급효과를 미쳐 평택시와 오산시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된다. 화학업종은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서산에 위치한 화학업체들과 반월시화공단에 입지한 안산의 화학업체들의 성장 때문으로 해석된다.

### ③ 고용의 양, 질이 열악한 유형 3의 업종 특성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열악한 유형 3의 경우 유형 전체의 고용창출률은 62.0%로 전반적으로 저조한 한편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전통서비스업으로 구분할 것 없이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들이 혼재되어 고용창출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가운데 부동산업, 사회복지, 창고 및 운송서비스 순으로 고용창출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복지의 경우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의 영향이 주요인으로 판단되며, 부동산업의 경우 서울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강남구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유형 3 전체의 고용 창출의 질을 살펴보면, 분석기간 동안 생산성이 매우 저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대체로 고용의 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일부 업종들의 노동생산성은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보험 및 연금,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가 두드러졌다. 보험 및 연금, 금융 업종들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사업체들이 집적해 있는 중구, 영등포구, 강남구의 노동생산성 향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위 지역들의 경우에도 도·소매업으로 대표되는

표 5-7. 고용의 양, 질이 열악한 유형의 업종 특성

(단위: %, 백만원)

순위	업종	고용창출률	업종	1인당 부가가치 변화
1	부동산업	113.7	보험 및 연금	157.3
2	사회복지	110.9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138.4
3	창고 및 운송서비스	105.8	부동산업	50.4
4	보험 및 연금	89.9	사업지원서비스	11.0
5	스포츠, 오락	77.7	건축기술	6.7
6	육상운송	73.9	사업시설관리	3.1
7	사업시설관리	72.6	보건업	1.1
8	출판업	70.3	육상운송	-1.9
9	도매 및 상품중개	69.1	사회복지	-6.7
10	사업지원서비스	65.7	금속가공	-7.9
	유형 3 전체	62.0	유형 3 전체	-143.0

전통서비스업의 생산성의 극심한 저하로 인해 금융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상쇄되었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④ 고용의 양은 우수, 질은 열악한 유형 4의 업종 특성

마지막으로 고용창출의 양은 우수한 반면, 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유형 4는 유형 전체의 고용창출률이 112.4%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업종들의 고용창출률이 돋보였으며, 특히 사회복지, 사업시설관리, 전문서비스 등의 고용성장이 두드러졌다. 사업시설관리의 경우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의 도심으로서 사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그 사업체들과 기능적 연계를 피하기 용이한 서초구와 해운대구, 삼성을 비롯한 관련 연계 업체들이 집적해 있는 수원시의 고용성장이 주요인으로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전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서초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 5-8. 고용의 양은 우수, 질은 열악한 유형의 업종 특성

(단위: %, 백만원)

순위	업종	고용창출률	업종	1인당 부가가치 변화
1	사회복지	110.9	보건업	22.5
2	창고 및 운송서비스	104.9	금융업	14.1
3	사업시설관리	99.5	사업시설관리	7.6
4	육상운송	96.0	건축기술	5.3
5	전문서비스	88.5	사업지원서비스	4.0
6	금융	88.4	육상운송	-4.5
7	출판업	87.1	사회복지	-5.7
8	도매 및 상품중개	83.0	출판업	-8.6
9	연구개발	81.0	창고 및 운송서비스	-29.9
10	건축기술	80.6	연구개발	-58.7
	유형 4 전체	112.4	유형 4 전체	-98.0

한편 전반적으로 유형 4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가운데 노동생산성이 향상된 업종은 보건업, 금융업, 사업시설관리 등 일부 업종에 불과하였으며, 위 업종들의 경우에도 1인당 부가가치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 (2) 유형별 특화업종 비교

본고에서는 유형별로 업종의 특성 차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유형의 고용창출량을 토대로 어떠한 업종이 유형별 특화 업종으로 추출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유형별 특화 업종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업종의 입지상 계수(Location Quotient coefficient, LQ)를 활용하였다. LQ지수로 측정되는 고용창출량 특화도는 각 유형 내에서 특정 산업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입지상 계수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해 산출하였다.

$$LQ_i^r = \frac{E_i^r / E^r}{E_i^n / E^n}$$

단,  $E_i^r$ : 유형 r 내 산업 i의 일자리 창출량

$E^r$ : 유형 r의 전체 일자리 창출량

$E_i^n$ : 가젤형 기업 전체 가운데 산업 i의 일자리 창출량

$E^n$ : 가젤형 기업 전체의 일자리 창출량

일반적으로 입지상 계수가 1보다 큰 경우, 해당 산업은 상대적으로 특화된 것을 의미할 때(김홍배, 2016), 위의 식에서 입지상 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의 경우 유형 r의 산업이 가젤형 기업 전체에 비해 특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유형별로 입지상 계수가 1이상인 산업을 추출하고자 하였는데, 유형 전체의 고용창출량 대비 산업의 고용창출량 비중이 1% 미만일 경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간주해 특화산업에서 제외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유형 1의 경우 아래 표 5-8의 상위 5위 특화 업종 외에도 전반적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부문 업종의 특화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고용성장이 돋보였던 육상운송, 사회복지 등은 유형 1의 특화 업종에 포함되었고, 질적 차원에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던 전자부품, 식료품업 또한 특화 업종에 포함되었다. 대체로 양적·질적 성장이 두드러졌던 업종과 특화 업종이 일치해 유형 1의 고용창출역량이 우수한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유형 1 가운데 전자부품(3.65)과 컴퓨터 프로그래밍(2.67)의 특화 정도가 돋보였다. 전자부품의 입지상 계수는 3.65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 가젤형 기업 전체에 비해 전자부품 업종의 특화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가산디지털단지를 중심으로 전자부품 업종이 발달한 금천구,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그 연계 산업관련 업체들과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파주시, 부천 테크노파크를 축으로 첨단산업단지

표 5-9. 유형별 상위 5위 특화 업종 비교

유형	특화업종(입지상 계수)
고용의 양, 질 우수 (유형 1)	• 전자부품(3.65), 컴퓨터 프로그래밍(2.67), 사회복지(1.99), 육상운송(1.77), 식료품업(1.62)
고용의 양 열악, 질 우수 (유형 2)	• 철강(3.08), 전기장비(2.87), 자동차(2.86), 고무 및 플라스틱(2.63), 금속가공(2.58)
고용의 양, 질 열악 (유형 3)	• 항공운송(2.81),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2.49), 보험 및 연금(2.23), 금융(2.19),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1.97)
고용의 양 우수, 질 열악 (유형 4)	• 연구개발(2.38), 사업지원서비스(1.24), 사회복지(1.23), 출판업(1.11), 건축기술(1.10)

가 구성되어 있는 부천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종은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가 구성되어 있는 금천구에서 관련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 육상운송, 식료품 업종 등에 특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 2의 경우, 대체로 제조업 부문 주력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들에 특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형 2에서 특화된 업종은 고용창출의 질적 차원에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과 대체로 일치하며, 양적으로 우수한 업종은 특화 업종으로 추출되지 않았다. 이런 특성이 유형 2가 양적으로는 열악하고 1인당 부가가치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형 2에서는 특히 철강, 전기장비, 자동차 업종 등의 특화정도가 돋보였다. 철강업의 경우 대표적으로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광양시, 철강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반월시화산업단지를 축으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안산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기장비 업종은 진곡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기장비 제조업이 특화되어 있는 광주 광산구, 양산석계산업단지 내 전기장비 제조업체들이 입지해 있는 양산시 등에 관련 종사자들이 많이 창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자동차 공장이 위치한 아산과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가 구성되어 있는 서산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유형 3의 경우,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부문 업종에 특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위 업종들은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업종과 전반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유형 3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열악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1인당 부가가치 증가 폭이 크면서 특화 업종임에도 이 업종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들의 질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금융 및 보험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전통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저하로 상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울시의 강남구를 비롯한 광역시에 위치한 시·군·구의 경우 도·소매업을 비롯한 전통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의 극감이 돋보였다.

표 5-8을 살펴보면 유형 3에서는 항공운송,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업종 등에 특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공운송의 경우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항공운송 여러 사업체들을 중심으로 항공운송이 특화되어 있는 중구, 김포공항 인근 지역인 강서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는 금융 및 보험업계 본사가 위치해 있고 금융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가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 4의 경우 대체로 지식기반서비스업 부문 업종들에 특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개발의 입지상 계수가 2.38로 높았으며, 사업지원서비스, 사회복지 업종 등도 특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형 4의 특화 업종에는 유형 4에서 고용창출률이 높은 업종인 연구개발, 사회복지, 출판업, 건축기술 등이 포함되어 유형 4의 고용의 양적 특성이 우수한 것에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형 4는 연구개발(2.38), 사업지원서비스(1.24), 사회복지(1.23) 순으로 특화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개발 업종은 속칭 한국판 실리콘 벨리라 불리며 연구기관 및 기업 연구소 등이 밀집해 있는 서초구, 삼성전자 연구단지를 비롯하여 대규모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수원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지원서비스는 사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대도시인 수원시와 전주시, 그리고 서울 내 사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도심권과 기능적 연계가 용이한 송파구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 3. 소결

본 장에서는 지속적인 고용창출이 지역경제의 활력제고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고용창출을 통해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양적 차원뿐만 아니라 질적 차원 또한 우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판단 하에 지역 단위에서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역량을 양적 특성과 질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지역별 고용창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고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파악하는 단계가 선행되고 이를 토대로 고용창출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고용창출의 특성을 변화에 주목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일자리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률을 기준으로 분석 기간 동안의 고용기회의 변화를 파악하였는데, 이는 지역노동시장의 절대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일자리의 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노동생산성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1인당 부가가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1인당 부가가치의 변화율을 활용할 경우, 1인당 부가가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경우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경우 계산하기 어렵다는 한계점 때문에 1인당 부가가치의 변화를 활용하였다.

지역 간 고용의 양적 측면을 비교분석했을 때, 고용창출률은 대체로 군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광역시보다는 비 광역시 내 지역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지역노동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도시의 경우 고용창출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1인당 부가가치의 변화를 통해 고용의 질적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는 지역 간 1인당 부가가치 변화의 격차가 매

우 컸으며, 고용창출과는 별개로 1인당 부가가치가 감소해 지역경제에 마이너스 효과를 준 경우들도 확인되었다. 이는 고용창출이 지역경제 활력제고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반적인 1인당 부가가치 변화 분포 패턴을 살펴보면, 경부축과 호남축을 따라 높게 파악되었으며 대체로 제조업 부문에 특화된 지역들의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서울시 내 많은 지역들의 노동생산성이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업종의 부가가치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의 중요성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고용창출역량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일자리의 양과 질이 우수한 유형(유형 1)은 대체로 전역에 분포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는 양과 질을 충족시키는 양질의 일자리는 모든 권역에 분포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양적 측면은 열악하나 질적 측면은 우수한 유형(유형 2)은 대체로 제조업에 특화된 경상도 내 밀집해 있었고, 양과 질이 모두 열악한 유형(유형 3)은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 및 대도시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광역시 및 대도시에 많이 분포해 있는 전통서비스업 업종들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생산성 또한 매우 저조하여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양적 측면은 양호하지만 질적 측면은 열악한 유형(유형 4)은 대체로 경기도, 전라도, 강원도의 분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 1에서 고용의 양적 측면의 경우 출판업·전문서비스·사회복지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부문 업종의 고용창출률이 돋보였으며, 1인당 부가가치의 증가 폭은 제조업 부문 주력업종으로 분류되는 전자부품·기계 등이 두드러졌다. 한편 유형 1의 특화 업종으로는 전자부품·식료품·금속가공 등으로 대표되는 제조업 부문 업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사회복지·출판업 등의 지식기반서비스업 부문 업종이 파악되었는데, 위 업종들은 고용

창출률이 높은 업종 및 1인당 부가가치 증가 폭이 큰 업종과 대체로 일치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이 유형 1의 고용창출역량이 우수한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유형 2의 경우, 전반적으로 업종들의 고용창출률이 낮은 가운데, 창고 및 운송서비스, 육상운송, 소매업 등의 전통서비스업 부문 업종들의 고용창출률이 다소 높았다. 질적 측면에서는 제조업 업종들의 노동생산성 향상 정도가 매우 컸으며, 특히 전자부품·화학 업종이 돋보였다. 한편 유형 2의 특화 업종으로는 제조업 부문 업종만 추출되었다. 즉 유형 2의 특화 업종은 대체로 유형 2 업종 가운데 고용의 질적 차원에서 우수하다고 분류되는 업종과는 일치하였지만, 고용창출률이 낮은 업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이 유형 2의 고용창출역량이 질적 우위에 있다는 특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형 3의 경우, 전반적으로 업종들의 고용창출률이 저조하였다. 유형 3에서 고용의 질적 향상은 보험 및 연금,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등 금융, 보험 업종에 한정되어 이루어졌는데, 금융 및 보험 업종의 경우 일자리의 질이 우수한 업종임과 동시에 특화업종 임에도 위 업종들이 분포해 있는 지역들의 고용창출역량의 질적 특성이 열악하다고 분석되었다. 이는 도·소매업을 비롯한 전통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의 극감 때문에 고용의 질적 측면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형 4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업 부문 업종들의 고용창출률이 높았으며,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사업시설관리·전문서비스의 고용의 양적성장이 두드러졌다. 한편 유형 4에서 보건업, 금융업 등의 일부 업종들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1인당 부가가치 증가폭이 매우 저조하였다. 유형 4의 특화 업종으로 추출된 연구개발·사업지원서비스·사회복지 등은 고용창출률은 높지만 1인당 부가가치는 감소한 업종이라는 특징이 유형 4의 고용창출역량의 양적 측면은 우위에 있지만 질적 측면은 열악한 특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 1. 요약

최근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실업난은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의해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창업지원활성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혁신형 창업(기회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창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가젤형 기업이 주목받고 있고, 가젤형 기업에 관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가젤형 기업의 특성은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가젤형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 차별적인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 가젤형 기업과 관련된 지역단위에서의 정책은 미흡하며, 관련 연구 또한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먼저 가젤형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업종을 파악하고, 업종별 공간분포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가젤형 기업이 분포한 지역단위에서 고용의 양적 특성과 질적 특성으로 구분해 지역별 고용창출역량을 비교분석하고, 유형화를 통해 각 유형별로 어떤 업종 특성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젤형 기업의 업종 구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가운데, 서비스업 내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주력업종으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조업 내에서는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와 자동차 업종이 전체 대비 40.4%의 비중을 차지해 그 비중이 부각되었고, 서비스업 내에서는 사업지원서비스·의료·연구개발·전문서비스 업종이 전체 대비 50% 비중을 상회한 가운데 특히 사

업서비스업의 역할이 돋보였다.

둘째, 가젤형 기업의 분포 특성을 파악한 결과, 제조업의 경우 서울 인근에 위치해 전반적으로 전문인력 수급이 용이한 경기도의 비중이 두드러지는 한편 주요 업종 간 상대적 우위를 점한 지역들의 차이가 매우 컸다.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는 대기업 및 그 연계 산업들을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된 파주시, 이천시 등에, 자동차 업종은 자동차 공장이 위치하거나 부품산업단지가 조성된 서산시, 안산시 등에, 기계는 국가산업단지 혹은 일반산업단지가 형성된 창원시, 천안시 등에, 금속가공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 목적으로 국가산업단지 내 입지하였거나 일반산업단지 내 금속가공 업체들의 입주 분포비중이 높은 구미시, 경주시 등에 종사자들이 밀집되어 있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가젤형 기업 내 사업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기업 및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에 종사자들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하는 가운데, 업종 간 입지특성의 차이가 돋보였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체들과의 기능적 연계가 용이한 사업체들이 집적해 있는 영등포구, 마포구 등에 종사자들이 많이 분포하였고, 의료업은 대형 병원 혹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클러스터가 형성된 강남구, 종로구 등에, 연구개발은 연구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수원시, 대전유성구 등에 군집해 있었다. 전문서비스업은 전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강남구, 종로구 등이 종사자의 비중이 높았다.

셋째,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역량을 분석한 결과, 고용의 양적 측면의 경우, 대체로 군부 및 비 광역시 내 시·군·구의 고용창출률이 높게 파악되었고, 질적 측면의 경우에는 경부축과 호남축을 따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역 간 고용창출의 1인당 부가가치의 변화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어, 지역별로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용창출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기준으로 가젤형 기업의 분포를 고용창출의 양과 질이 우수한 유형(유형 1), 창출된 일자리의 양

은 저조한 반면 질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유형(유형 2), 고용창출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모두 열악한 유형(유형 3), 창출된 일자리의 양은 양호한 반면 질은 열악한 유형(유형 4)로 분류하였다.

유형 1은 전역에 걸쳐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역량이 우수한 일자리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유형 2는 제조업에 특화된 경상도의 분포 비중이 높았다. 유형 3에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및 대도시 내 지역이 많이 속해 있었으며, 유형 4에는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의 비중이 컸다.

넷째, 고용창출역량에 기초해 유형별 업종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고용의 양과 질이 양호한 유형 1의 고용창출률은 86%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대체로 출판업, 전문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부문 업종들의 고용창출률이 높다고 파악되었다. 유형 1의 노동생산성 또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제조업 부문 업종들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폭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형 1의 특화 업종에는 전자부품(3.65)과 컴퓨터 프로그래밍(2.67) 등 고용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보이는 업종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고용의 양은 열악하지만 질은 양호한 유형 2는 전반적으로 고용창출률이 낮은 가운데, 창고 및 운송서비스, 육상운송, 소매업 등 전통서비스업 부문 일부 업종들의 고용창출률이 높다고 분석되었다. 반면 유형 2의 1인당 부가가치는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특히 전자부품, 화학물질 등 제조업 주력 업종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유형 2의 특화 업종으로는 철강(3.08), 전기장비(2.87), 자동차(2.86) 등이 선정되었으며, 위 업종들은 대체로 고용창출역량의 질적 측면이 양호하다고 파악된 업종들이었다.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열악한 유형 3은 고용창출률이 유형 2와 마찬가지로 낮다고 파악된 가운데, 서비스업 업종들이 혼재되어 고용창출률이 높았다. 1인당 부가가치의 경우 업종 간 변화 폭이 매우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 3에 속한 업종 중 보험 및 연금,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가 돋보였다. 유형 3의 특화업종은 대체로 유형 3에서 고용창출률이 높다고 파악되는 업종, 1인당 부가가치가 증가한 업종과 일치하지 않았다.

고용의 양은 양호하지만 질은 열악한 유형 4는 사회복지, 사업시설관리, 전문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부문 업종들의 고용창출의 양적 성장이 돋보였다. 반면 고용의 질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열악했으며, 상위 5위 업종에 포함되는 업종 또한 1인당 부가가치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유형 4의 특화업종들은 전반적으로 고용창출역량 가운데 양적 특성이 양호한 업종들과는 일치하였지만, 질적 측면이 우수한 업종과는 상이하였다.

## 2. 연구의 시사점

가젤형 기업의 업종구성 및 업종별 공간분포를 파악하고 지역별 고용창출역량을 양적 차원과 질적 차원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과 가젤형 기업 모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고용창출 과정에 있어서 창업기업과 가젤형 기업을 분리된 존재로서 파악해서는 안 된다. 창업을 대체하는 기업이 가젤형 기업이 아니라 창업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할 경우 가젤형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창업지원정책과 가젤형 기업 육성 정책은 상호 간 긴밀하게 연계된 정책이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지원 이후에도 창업기업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연속된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차원에서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역량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젤형 기업이 입지해 있는 지역들의 1인당 부가가치 변화의 격차가 매우 큼을 파악하였다. 지역의 부가가치가 곧 지역별 GRDP를 대체하는



지표로 활용됨을 고려할 때, 지역 간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고용의 양적 차원과 질적 측면 모두에서 종합적으로 고용창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고용의 질적 측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셋째, 지역 간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역량을 양적, 질적 측면으로 구분해 분석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창출역량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지역의 고용창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로 제시하는 방향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가젤형 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단순히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육성 및 발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고용창출역량을 제고하는 입장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고용창출역량에 따른 유형별 업종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각 유형의 특화업종과 유형별 양적 측면 혹은 질적 측면 성장 업종과 일치하는 경향에 따라 고용창출역량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각 지역 내에 존재하는 특화 업종을 파악하여, 그 업종이 고용창출역량을 강화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경제총조사」 DB상 지역 및 산업정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종사자 수 변화를 추적하였기 때문에, 행정구역 코드나 사업장이 변화했을 경우에는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분석 초기년도인 2010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세종시나 2010년과 2015년 사이 행정구역 코드가 바뀐 청주시 내에 있는 사업체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사업장이 입지한 곳이 바뀌었을 경우도 추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고용의 양적 측면을 분석할 때, ‘고용증가율’만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고용기회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광역시 및 대도시에 위치한 지역들의 고용기회가 낮게 산출되어 양적인 차원에서 고용창출역량을 분석하는데 한계점을 지니며, 이는 추후에 보완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용의 질적 측면을 파악함에 있어서 ‘노동 생산성’ 한 가지 기준만 고려하였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의 일자리 질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일자리의 질적 측면으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각 사업체의 일자리의 질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가젤형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1인당 부가가치의 변화를 토대로 파악하였을 뿐, 실증적으로 가젤형 기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에 가젤형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행해짐으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된다면, 지자체가 가젤형 기업을 육성하는데 보다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유도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용노동부(2012), 「2012년판 고용보험백서」  
 \_\_\_\_\_(2016), 「2016년판 고용보험백서」
- 권영섭·김동주(2002),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특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권오형(2011), 가젤형 중소기업의 성공요인과 성장전략에 대한 실증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오형 외(2012), “수퍼 가젤형 기업의 특성과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5(2): 45-64.
- 권재현 외(2007), “지식 서비스 산업의 집적성과 입지 지역요인에 관한 연구”,  
 「상경연구」, 23(2): 45-62
- 김영민(2014), 「지역별 일자리 질의 현황 및 추이 분석」, 세종: 산업연구원
- 김정홍(2013), “일자리창출 상위 10% 기업의 특성 분석”, 「KIET 산업경  
 제」, 179: 53-65.
- 김정홍 외(2013), 「일자리 창출형 가젤기업의 입지 및 성장 특성 연구」,  
 세종: 산업연구원
- 김종일(2006),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중소기업」, 대전: 중소기업연구원
- 김종중·김갑성(2009), “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입지요인 분석-서울디지털산  
 업 단지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44(7): 85-96.
- 김원규(2012), “신설법인 기준 창업률과 성장 및 고용증가율 간의 관계 분  
 석”, 「KIET 산업경제」, 3: 49-57.
- 김홍배(2016),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론: 개정판」, 서울: 기문당.
- 김희철·홍성조(2015), “신성장동력산업의 입지현황 및 집적특성에 관한 연구-수  
 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7(4): 65-88.
- 박순홍·신현한(2013), “가젤기업(Gazelles)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소  
 기업연구」, 36(1): 1-24.
- 박용규(2004), 「입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박재성(2014),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서울: 중소기업연구  
 원

- 박재홍(2004), “경기도 지식기반산업의 공간적 분화 및 입지 전망”, 「한국지역 개발학회지」, 16(1): 23-43
- 박중화(2013), “벤처기업의 입지특성”, 「도시행정학보」, 26(2): 43-71.
- 박형민(2009), 「한국의 지식서비스 산업 분석」, 서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서정대·김선화(2010), 「성장 지원 프로그램(GSP)을 통한 중소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 서울: 중소기업연구원
- \_\_\_\_\_(2011a), 「고성장기업의 일자리 창출: 10%의 기업이 46%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서울: 중소기업연구원
- \_\_\_\_\_(2011b), 「한국과 OECD 회원국의 고성장기업- “한국 고성장 기업, 일자리 창출임팩트가 약하다.”」, 서울: 중소기업연구원
- \_\_\_\_\_(2011c), 「16개 광역지자체의 고성장기업 비교: 일자리 창출 역량의 관점에서」, 서울: 중소기업연구원
- 신우진·신우화(2009), “서울시 소매업종 공간분포패턴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19(2): 279-296
- 안은경·이희연(2015), “지역노동시장권별 창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격차 및 일자리 질 비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2): 168-189.
- 윤윤구·고영우(2009),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이동주 외(2011), “창업이 고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33(2): 73-92.
- 이미순 외(2015), “가젤형 벤처기업과 일반 벤처기업 간 역량 비교 연구”, 「중소기업연구」, 37(3): 201-224.
- 이윤재(2009), “기업가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증분석”, 「중소기업연구」, 31(2): 63-84.
- 이희연(2011), 「경제지리학: 제 3판」, 서울: 법문사
- 이희연·심재현(2011), 「GIS 지리정보학-이론과 실습: 제 2판」, 파주: 법문사
- 이희연·노승철(2013), 「고급통계분석론-이론과 실습: 제 2판」, 고양: 문우사
- 임채윤(2009),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방향과 과제”, 「STEPI Insight」, 33: 1-16.

- 조덕희(2011), 「고성장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시사점」, 세종: 산업연구원
- \_\_\_\_\_ (2014),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정책과제」, 세종: 산업연구원
- 차상미(2015), 「2015 상장기업의 부가가치 분석」, 서울: 한국생산성본부
- 통계청(2008), 「한국의 서비스산업- 서비스업총조사 종합보고서」, 대전: 통계청
- \_\_\_\_\_ (2015), 「2016 경제총조사 종합시행계획」, 대전: 통계청
- Almus, Matthias(2002), “What characterizes a fast growing firm”, *Applied Economics*, 34(12): 1497-1508.
- Acs, Z. J. and Mueller, P.(2008). “Employment effects of business dynamics: mice, gazelles and elephants”, *Small Business Economics*, 30(1): 85-100.
- Acs, Z. J., Parsons, W. and Tracy, S.(2008). *High-Impact Firms: Gazelles Revisited*, Washington, DC: SBA.
- Ahmad, N.(2006), *A Proposed Framework for Business Demographic Statistics*, Paris: OECD.
- Armington, C. and Acs, Z. J.(2002), “The determinants of regional variation in new firm formation”, *Regional studies*, 36(1): 33-45.
- Autio, E., Arenius, P. and Wallenius, H.(2000), *Economic Impact of Gazelle Firms in Finland*,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 Baptista, R., V. Escária and P. Madruga(2008), “Entrepreneurship, regional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the case of Portugal”, *Small Business Economics*, 30: 49-58.
- Baptista, R. and Preto, M. T.(2011), “New firm formation and employment growth: regional and business dynamics”, *Small Business Economics*, 36(4): 419-442.
- Birch, D. L.(1981), “Who creates jobs?”, *The Public Interest*, 65: 3-14.
- Birch, D. L.(1987), *Job Creation in America: How Our Smallest Companies Put The Most People To Work*, New York : Free Press
- Birch, D. L. and Medoff, J.(1994), “Gazelles”, In L. C. Solmon & A. R.

- Levenson(Eds.), *Labor Markets, Employment Policy and Job Creation*, Boulder: Westview Press.
- Daunfeldt, S., N. Elert. and D. Johansson(2010),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high-growth firms : do definitions matter?", *Ratio working papers*, 151: 1-20.
- Davidsson, P. and Delmar, F.(1997), "High-growth firms: characteristics, job contribution and method observations", In RENT XI Conference, 27-28 November 1997, Mannheim, Germany.
- \_\_\_\_\_(2003), Hunting for New Employment: The Role of High Growth Firms, In D. A. Kirby & A. Watson(Eds.), *Small firm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developed and transition economies: A reader*, Hampshire: Ashgate
- Delmar, F., Davidsson, P. and Gartner, W. B.(2003), "Arriving at the high-growth firm",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2): 189-216.
- Delmar, F.(2006), "Measuring growth: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and empirical results", *Entrepreneurship and the Growth of Firms*, 1(1): 62-84.
- Deschryvere, M.(2008), *High-Growth Firms and Job Creation in Finland*, Helsinki: ETLA.
- Fritsch, M. and Mueller, P.(2004), "Effects of new business form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over time", *Regional Studies*, 38(8): 961-975
- Fritsch, M.(2008), "How does new business formation affect regional development?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Small Business Economics*, 30(1): 1-14.
- Fritsch M. and Mueller P.(2008), "The effect of new business form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over time: The case of Germany", *Small Business Economics*, 30: 15-29.
- Fritsch, M. and Schroeter, A.(2011), "Why does the effect of new business formation differ across regions?", *Small Business Economics*, 36(4): 383-400.

- Geroski, P. A.(1995), “What do we know about ent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13(4): 421-440.
- Hayter, R.(1997), *The Dynamics of Industrial Location: The Factory, The Firm and The Production System*,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Henrekson, M. and D. Johansson(2010), “Gazelles as job creators: a survey and interpretation of the evidence”, *Small Business Economics*, 35: 227-244.
- Huntsberger, D.(1961), *Elements of Statistical Inference*, Chicago: Allyn and Bacon
- Jovanovic, B.(1982), “Selection and evolution of industry”, *Econometrica: Journal of Econometric Society*, 50(3): 647-670.
- Kirchhoff, B. A. and Greene, P. G.(1998), “Understanding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tent of critiques of US job creation research”, *Small Business Economics*, 10(2): 153-169.
- Moreno, A. M. and Casillas, J. C.(2007), “High-growth SMEs versus non-high-growth SMEs: a discriminant analysis”,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19(1): 69-88.
- Muller, P., Van Stel, A. and Storey, D. J.(2008), “The effects of new firm form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over time: The case of Great Britain”, *Small Business Economics*, 30: 59-71.
- NESTA(2009), *The Vital 6 Percent: How High-Growth Innovative Business Generate Prosperity and Jobs*, London: NESTA.
- OECD (2002), *High-Growth SMEs and Employment*, Paris: OECD.
- Rodríguez, A. C., Molina, M. A. and Pérez, A. L. G(2003), “Size, age, activity sector on the growth of the small and medium firm size”, *Small Business Economics*, 21: 289 - 307.
- Romer, p.(1986),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 1002-1037.
- Schreyer, P.(2000), *High-growth Firms and Employment*, Paris: OECD.
- Schumpeter, J.(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 Harper & Row.

- Shane, S. and Venkataraman, S.(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 Solow, R.(1956),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0: 65-94.
- Storey, D. J.(1994), *Understanding The Small Business Sector*, London: Routledge.
- \_\_\_\_\_(1996, 1997), *The Ten Percenters - Fast Growing SMEs in Great Britain, First, Second report*, London: Deloitte & Touch International.
- Sutton, J.(1997), “Gibrat’s legac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 40-59.
- Thurik, R. and Wennekers, S.(2004),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1(1): 140-149.
- Van Stel, A. and D. Storey(2004), “The link between firm births and job creation: Is there a Upas tree effect?”, *Regional Studies*, 38: 893-909.
- Van Stel, A. and Kashifa Suddle(2008), “The impact of new firm form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in the Netherlands”, *Small Business Economics*, 30: 31-47.
- Wagner, J.(1992), “Firm size, firm growth, and persistence of chance: testing Gibrat’s Law with establishment data from Lower Saxony, 1978 - 1989”, *Small Business Economics*, 4: 125 - 131.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 산단114, <http://www.sandan114.com/>



## 부 록

### 부록 1. 산업대분류별 가젤형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단위: 개, %, 명)

산업대분류(중분류 코드)	2015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6	0.2	593	0.1
B. 광업(05~08)	1	0.0	72	0.0
C. 제조업(10~33)	967	25.6	241,615	26.1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산업 (35~36)	0	0.0	0	0.0
E.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5	0.1	477	0.1
F. 건설업(41~42)	590	15.6	126,082	13.6
G. 도매 및 소매업(45~47)	350	9.3	55,574	6.0
H. 운수업(49~52)	260	6.9	49,825	5.4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66	1.7	7861	0.9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 스업(58~63)	216	5.7	34,021	3.7
K. 금융 및 보험업(64~66)	117	3.1	51,963	5.6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53	1.4	9,784	1.1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73)	278	7.4	107,134	11.6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업(74~75)	353	9.3	122,864	13.3
P. 교육서비스업(85)	53	1.4	4,354	0.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349	9.2	99,475	10.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90~91)	46	1.2	6,089	0.7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69	1.8	6,732	0.7

주) 본 연구의 취지에 벗어나는 일부 산업 제외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총합을 전 산업의 총합으로 간주함.

# Abstract

## Analysis of spatial distribution and job creation capacity of Gazelle firms

SA, Hoseok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Unemployment has been recently emerging as one of the major issues facing our society. The lack of jobs has been unceasingly exacerbated by the continued jobless growth.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has been striving to alleviate the unemployment and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it by implementing a number of policies aimed at assisting start-ups. However, since micro start-ups, rather than innovative start-ups which are the ones which contribute to improving economic vitality, are the majority, policies of start-up assistance have been evaluated as ineffective.

Meanwhile, several policies regarding Gazelle firms which contribute to sustained job creation are being implemented. However, because the distribution as well as the features of Gazelle firms are heterogeneous among regions, regional policies which reflect discriminative features of regions need to be provided for promoting

these enterprises. Yet regional policies about Gazelle firms are insufficient and research work regarding this field is not enough.

Against this backdrop, the presented study aimed to analyze industries which constitute Gazelle firms, and the differences of spatial distribution by industry. In addition, this research aimed to compare job creation capacity of regions by classifying the precise characteristics of the jobs created by evaluating them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erm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the following. Firstly, the ratio which manufacturing industry and service industry account for among employees of Gazelle firms was high and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was comprised mainly in service industry. This demonstrates that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are the core industries of Gazelle firms. In addition, it is shown that in the manufacturing sectors, the proportion of employees working in the electronic components manufacturing as well as the automobile industry was high. Whilst the business service industry including business support services and R&D account for a substantial part in the knowledge-based service sector.

Secondly, the results of determin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Gazelle firms indicated that, in the case of the manufacturing sector, employees are concentrated in Gyeonggi province where land value is relatively cheap and attracting high-skilled employees is fairly easy. In the case of the knowledge-based service sector, employees were densely concentrated in Seoul because of the conglomerate's demand for knowledge-based services as well as the high demand for professional workforce of knowledge-based services. Furthermor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stribution of Gazelle firms of main sub-industrie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the regions where the distribution ratio of employees was high were promine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enterpris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local characteristics and specifics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process of fostering Gazelle-firms.

Third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job creation capacity of the Gazelle firms, it was shown that there are very distinctiv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features of the employments in each region. Us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the distribution of Gazelle firms were classified into four different types. It is suggested that each type should be approached in a different manner in order to enhance the enterprises' job creation capacity.

Fourthly, in the case of the first type in which quantity and quality of employment were superior, the job creation rate of knowledge-based service sector stood out in regards to quantity. Furthermore, the quality of job creation in the manufacturing sector has improved substantially. The second type which was qualitatively superior demonstrates that the quality of manufacturing industry sector has improved greatly. Fourth type which was quantitatively excellent was indicated that job creation rate of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sector was high overall. Also it was analyzed tha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of each type were affected by whether or not the specialized industry of each type grew. It is argued that specialized industry of each region needs to be fostered.

This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secure continuous and sustainable job creation, establishing discriminative policies which would comprehensively conside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in each region is crucial for promoting Gazelle firms. It stressed that policies which consider especially qualitative features of job creation as well as quantitative aspects of

job creation are necessary for spurring regional economic vitality.

◆ keywords : Gazelle firms, Job creation, Quantity of employment, Quality of employment, Job creation capacity, Regional economic vitality

◆ *Student Number : 2016-24808*